



2010년도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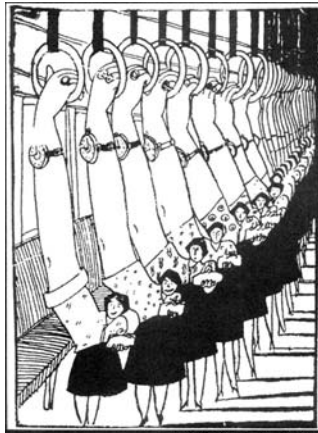
한국 근대문화의 이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2010년도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한국 근대문화의 이해



모-던 켄의 장신운동, <<조선일보>>, 1928. 2. 5

차례 / Contents

교육일정 •	1
근대성의 경험, 개화기 지성의 시작_오선민 •	3
일제말기 문학-협력과 저항 사이의 목소리_김성연 •	19
식민지 근대의 풍경-이중섭의 <황소>를 중심으로_김현숙 •	31
활동사진, 필름에 새겨진 근대의 모습_장두식 •	41
대중가요, 근대를 노래하라_장유정 •	55
소문에서 신문으로_조맹기 •	63
인천의 근대건축_손장원 •	85
근대 도시 공간과 유흥 풍속_서지영 •	101

2010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교육일정

- ◆ 주 제 : 한국 근대문화의 이해
- ◆ 기 간 : 2010년 8월 9일 ~ 8월 13일
- ◆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일자	시간	주제	강사
8.9(월)	09:30~10:00	개강식	-
	10:00~12:00	근대성의 경험, 개화기 지성의 시작	오선민(이화여자대학교)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일제말기 문학-협력과 저항 사이의 목소리	김성연(동덕여자대학교)
	15:00~17:00	식민지 근대의 풍경-이중섭의 <황소>를 중심으로	김현숙(문화재전문위원)
8.10(화)	10:00~12:00	활동사진, 필름에 새겨진 근대의 모습	장두식(단국대학교)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대중가요, 근대를 노래하라	장유정(단국대학교)
	15:00~17:00	소문에서 신문으로	조맹기(서강대학교)
8.11(수)	10:00~12:00	인천의 근대건축	손장원(재능대학)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근대 도시 공간과 유흥 풍속	서지영(고려대학교)
	15:00~17:00	모던걸의 패션스타일과 근대적 표상	김수진(서울대학교)
8.12(목)	09:00~18:00	현장답사	견수찬(인천 중구)
8.13(금)	10:00~12:00	전시실교육	유물해설사(자원봉사자)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체험실습	담당자
	15:00~15:30	종강식	-

근대성의 경험, 개화기 지성의 시작

오 선 민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성의 경험, 개화기 지성의 시작

◆ 목 차 ◆

1. 해외 유학과 우리의 현재
2. 시간과 돈이 없을 때 해외 유학 하는 법 : 일본 유학 가자
3. 입신출세의 코오스
4. 제국 일본에서 탈출하려면?
5. 네 혀를 내어 놓아라

1. 해외 유학과 우리의 현재

한국인이 유학 가고 싶은 곳과, 한국으로 유학 오게 만들어야 할 대상은 정해져 있다. 유학가고 싶은 선망의 대상은 영어 사용권 국가이며, 한국의 지방 대학으로 유학 오게 해야 하는 대상은 아시아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다. 해외로 유학 보내고 자국으로 유학 오게끔 하는 이러한 풍조는 100년 전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유길준. 그는 일본으로 떠난 최초의 조선 유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인 최초의 외국 학생이기도 했다. 그와 후쿠자와 유키치의 인연을 통해 일본과 조선 사이의 ‘사제 관계’가 형성되고 나아가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구성되었다.

근대에는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의해 두 개의 언어 공동체가 서로를 참조하며 배타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두 개의 혀를 가진 자에 의해 두 개의 언어군이 만들어졌다. 한 입으로 두 개의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미국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식인이 ‘소통’을 목적으로 제2외국어 공부에 힘을 쏟는 정성과 비미국 지식인들이 ‘소통’을 목적으로 영어에 쏟는 정성의 정도는 같을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안하는 자, 두 말을 할 수 있는자, 하고 있는 자가 다 따로 있다. 그들은 비(非)미국 지식인들이다. 바로 이들에 의해 미국을 축으로 하는 지식계의 판도가 만들어진다.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해외 유학’이라는 만국 공통처럼 여겨지는 학문 시스템의 구조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 이런 통과의를 끝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의해 마침내 세계를 움직일 수 있게 된 파워 엘리트 리그가 형성된다. 지맥, 인맥, 학맥의 꽃이 활짝 피

는 대지가 바로 여기다.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된 이 지식 시스템에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싶은 자는 끊임없는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 이 생태계에서 패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최후의 승자가 있을지언정, 만년 승자란 불가능하다. 삶은 비겁한 술수에 의해서나 실력 부족에 의해서나 갑자기 패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마주하게 된다. 기쁨은 너와 상대해서만 발견되고, 행복은 짧은 도취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성숙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나보다 못한 너희들이며, 나를 견인하는 것은 나보다 잘난 너희들이다. 그래서? 피곤하다. 어째서 이런 삶을 갖게 되었는가? 이 삶을 추동시키는 동력은 무엇인가? 이 강의는 세계화된 지적 위계 구조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이들의 독특한 이력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해외 유학생이라는 월경자를 다른 월경자들 틈에서 분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여행자나 이주자가 아니다. 문명국 유학과 문명국 여행은 이국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는 시간의 양에 기반할 수 없는 차이를 갖는다. 여행자는 문명국의 일상과는 무관한 차원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유학생은 학교 혹은 시장이라고 하는 문명국의 일상에 어떻게든 몸을 섞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기가 불가능한 시선의 흔들림이 발생한다. 문명국의 시민 교육은 시스템 상에서는 적어도 이들을 예외로 취급하지 않는다. 때문에 유학생들은 문명국의 예비 시민권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자신이 떠나온 곳을 조망하게 된다. 그는 가끔씩 문명의 시선에 편승하여 고향과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고향을 잊을 수도 없다. 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선의 전위 속에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 삶을 분할하고, 활동의 가능 불가능을 작동시키는 온갖 경계들을 넘나드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들이 이러한 경계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유학생들은 제국/문명과 식민지/야만 사이를 왕복 운동해 가면서 문명국의 야만인, 식민지의 제국인과 같은 형태로 자기 안에 두 개의 시간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학생들이 자기 안의 공재성(coevalness, 共在性)을 견디지 못하고 공간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통해 제국과 식민지, 문명과 야만, 선진국과 후진국이라고 하는 분리가 지리적으로 표상과 함께 구축될 수 있었다.

2. 시간과 돈이 없을 때 해외 유학 하는 법 : 일본 유학 가자

배움을 왜 밖에서 구해가지고 와야 하는가?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학습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시간과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가끔 불도(佛道)

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인도로 떠났던 경우를 제외하면, 그나마도 해외 유학의 대상처는 중국이었다. 성인의 도를 깨우치고, 입신출세하여 치국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외 유학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해외 유학이 한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근대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른 것은 근대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지식인들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조선보다도 빨리 서양과 전쟁,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다.

1900년대를 전후 한 시기의 조선에서 신문 논설이 가장 강조했던 화두는 문명과 개화였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기제는 ‘교육’이었다. 패배시킨 적의 나라에서 그들의 재주를 배운다는 것이 근대적인 게 아니다. 해외 유학이 특정한 나라의 ‘선진함’을 절대화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조건과 함께 ‘필수 불가결’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점이 근대적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의 제국주의』 등의 저서를 통해 동양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생산되는 문화적 구조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특정한 종류의 앎을 어떤 장소에 고착화시키는 서양 근대의 지적 작업을 비판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으로 떠났던 해외 유학생들을 통해 ‘문명’이라는 하나의 상태가 지리적 서양과 동일시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명’의 의미가 변했다.

‘문명’의 고전적 의미는 “文德이 빛나는 모습”, “세상이 열리고 사람의 지혜가 밝아지는 것” 등이며, 『서경』의 ‘준철문명(濬哲文明)’과 『역경』의 ‘천하문명(天下文明)’등을 통해 출전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지식인들은 문명이란 하나의 상태이며 특정한 장소에 가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경전과 함께 성인의 말씀 속에서 풍요롭게 실천됨으로써 의미를 획득한다고 생각했다. 문명은 이제 더 이상 “문덕이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고, “civilization”의 역어가 되었다. ‘문명’(civilization)을 서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문명 아닌 것으로서의 동양이 상대화되었다. 따라서 문명화하는 길은 서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서양 유학이라는 형태의 지식 활동이 문명화의 피할 수 없는 한 방법이 된 까닭이다. 그렇다면 서양 유학과 일본 유학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중화 세계에서 만국공법의 세계 질서로 편입되는 것은 기존의 정치세력들과 젊은 지식인들의 삶에 변혁을 요구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 논리는 곧바로 삶을 위협했다. 위협에 대한 대책 모색을 위해 ‘학문’을 권하는 논의들이 일본, 중국, 그리고 조선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학문을 권한다는 것이 새로울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근대 권학편의 재생산은 서양 대신에 ‘일본’을 효과적인 학습 공간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부각과 함께 중국 중심의 지적 중화주의에 대한 탈피가 이루어졌다. 일본이 학습 공간으로 부각된 데에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의 개략』(1875)에 앞서 퍼

냈던 『학문을 권함』(1872)과 중국 근대 지식인 장지동의 ‘권학편’이 큰 역할을 했다.

『학문을 권함』은 하늘 아래 사람 없고 하늘 위에 사람 없다는 첫 머리의 말로써 공평한 착인세(人世)로 나아가기 위한 ‘학문’의 역할을 고평했다. ‘권학편’은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앉아서 책을 보는 것 보다 낫고, 나갈 수 있다면 서양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본이면 ‘학습 시간의 절약’, ‘한문을 통한 습득의 편이’라는 이점이 있으므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다. 다음은 장지동 『권학편』에서 말하고 있는 유학(留學)의 논리다. 이 논리는 한반도의 계몽 지식인들도 자극했다.

“①‘외국에 일 년 나가 있는 것이 사서를 5년 동안 읽는 것 보다 낫다’는 말은 조영평(趙營平)의 “백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에 비견되고, 외국의 학당에 입학해서 일 년을 있는 것이 중국의 학당에서 삼 년을 있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맹자가 “장악에 데려다 둔다”(置之莊巖)고 말한 데에 비견된다. [...] 후세에 뛰어난 군주와 훌륭한 신하들의 경우, 한무제는 장안에서 공부했고, 유비(昭烈)는 정강성(鄭康成, 정현)과 진원방(陳元方, 진기)과 교제했다. 명대의 손승종(孫承宗)은 도착하기 전에 변경의 요새를 두루 살폈고, 원숭환(袁崇煥)은 경관(京官)이 되던 날 요동으로 잠입해 들어갔다. ②이 지난 날의 사실들은 모두 효과가 분명했다. ③오늘날의 일을 이야기 해보자. 일본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금세 흥성했는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1922), 에노모토 타케아키(榎本武揚, 1836~1908),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1844~1897) 등은 모두 20년 전 외국 유학생으로서 일본이 서구에 위협당하는 현실에 분개하여 각각 100여 명씩을 데리고 각각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가서 정치, 상공업, 육해군 군사학 등을 배웠다.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각료와 장군이 되니 정사가 금세 변화를 보였고 큰 모습으로 동방을 내려다보았다. [...] 배우러 가는 나라는 서양보다 일본이 낫다. 첫째,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이 절약되어 많이 보낼 수 있다. 둘째, 중국에서 가까워서 쉽게 돌아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글은 중국의 글에 가까워서 이해하기 쉽다. 넷째, 서양의 책이 아주 많아서 서학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 이미 간추려 뽑아서 수정했다. 중국과 일본의 정서나 풍속 면에서 가까우니 쉽게 본떠서 실행하기가 쉽다. 절반의 노력으로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만한 것이 없다. 만약 스스로 더 깊이 배우고 완벽해지고 싶어서 다시 서양에 간다면 이것도 안 될 이유는 없다.”¹⁾

1) 장지동, 송인재 옮김, 『권학편』,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유학생정신사) 세미나, 2007, 강조는 인용자.

장지동은 외국에 일년 나가는 것이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좋을 것인가를 고전을 빌어 다시 풀고 있다.(①) 그리고 전근대 사회의 유학(遊學)이 처했던 지적 지반의 효과를 긍정하다가(②), 곧장 메이지 일본이 시도한 유학(③)을 긍정하는 일로 나아간다. 천하와 우주의 질서를 체현하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녔던 과거의 학습이 문명으로 단선화된 레일을 달려야 하는 논리에 거침없이 수렴하고 있다.

실로 문제가 되는 구절은 진하게 강조해 놓은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일본판 권학편과 중국판 권학편이 갈라선다. 중국인이 배우러 가는 나라로 서양보다 일본이 나은 까닭은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이 절감되는 까닭이다. 더 중요하게는 일본의 글이 중국의 글에 가까워 서양을 흡수하기에 보다 쉽도록 돕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서양 문명을 동양에 맞게 간추려 놓았다는 논리다. 절반의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서양을 배우고자 한다면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족하다! 타인의 지력에 편승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문명이란 문화화의 단선 궤도를 달려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문명]-일본[반개]-중국[야만 혹은 반개의 반개]’로 설정된 시간의 공간적 구도를 따라가자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은 먼저 일본화되어야 한다. 조선의 문명 근대화론 이면을 움직였던 정신의 논리도 이것이었다.

장지동이 이 글에서 표면적으로 전제하는 학습 내용은 일본의 그것이 아니다. 엄연히 서양이다. 일본을 높이 평가하는 까닭은 서양을 잘 배웠기 때문이다. 장지동이 주장하는 일본유학이란 일본이 서양을 흡수한 그 방법을 배우겠다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중국과 서양 사이를 매개하는 일본의 매개성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다. 일본이 서양을 투명하게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후쿠자와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를 배출한 일본의 지력을 신뢰해서만은 아니다. 장지동에게 문명이란 엄연하기만 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잘 재현하기만 하면 온전하게 전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서양 문명이란 세계의 전화 속을 승승장구해가던 일본의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서양과 일본. 장지동에게 이 둘은 존재론적으로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같은 것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태서’와 ‘세계’이지, ‘일본’이 아니었다.²⁾ 그러나 일본 유학이 서양 유학의 대리 체험장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지적 식민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하자. 한국으로 건너오는 아시아의 친구들이 지

2) 지독한 유럽 지향성과 ‘문명론’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해외 유학 체험을 추적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문명론의 지향이 유럽을 중심에 놓고 구상되었으며, 문명론의 한계를 인식하는 일은 ‘심상적 유럽(지리적 미국을 포함해서)’이 갖는 폭력성의 체험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식민지 경험을 경유한 한국에서 탈식민의 과제란 제국 일본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심상적 유럽과의 관계맺음 방식을 통해서 해명해야 할 과제다.

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3. 입신출세의 코오스

메이지 시기 내내 일본이 유럽으로 유학생을 보내고 또 보내는 동안, 일본은 아시아 내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위계를 제작해 나갔다.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인근의 나라들에 교사를 파견했다. 아시아 유학의 본가로 일본이 우뚝 설 수 있던 정치적 배경에는 1877년 조일수호조규라든가 청일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후쿠자와와 같은 근대 일본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지만, 그들의 대외 인식은 청일전쟁, 갑신정변 등을 계기로 급격하게 변해갔고 결국 정한론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해외 유학이라는 지식이동 경로의 개발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에 기반한 일본 측의 강한 권고, 그리고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일으킨 조선 내부의 공포심³⁾이 동시적으로 작동했다. 1881년 수신사 파견과 함께 본격화된 해외 유학은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까지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지속되었다. 이 시기 유학이란 군사적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 실용 유학이랄 수 있으며 문명이라는 키워드가 본격화되는 와중에도 문명의 정신과 그 본질에 대한 추상적이고도 철학적 수준의 학습은 이뤄지지 않았다. 1910년대 독일 유학생 수는 한말에 미치지 못한다. 회고에 따르면 5백명 내지 6백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유학생 수를 좌우했던 가장 큰 변수는 한일합방 이후 1911년의 ‘조선 교육령’ 공포다. 물론 합방 이후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조선의 유학 붐에 심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를 제도적으로 간섭하고 조직화했던 차원에서 일본 유학에 대한 이미지가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우선 언급해 본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경영에서 교육정책 모델은 프랑스의 그것을 전범으로 삼았다. 비서구 제국으로서 일본이 식민 통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적지 않은 모델을 제공했는데 이는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비서구 지역의 제국주의인 일본은 인종적 유사성과 지역적 근접성이라는 식민지의 특수성 때문에 서구 식민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제국 일본의 식민 교육 정책은 프랑스의 것에 가까웠다. 영국과 프랑스 공히 아프리카와 인도, 아프리카와 베트남에 대해 그 종적 차이를 내세워 인종적 혐오감을 식민지인들에게 교육적으로 강요했지만, 영국은 인도인을 영국화하려는 제도적 시도는 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와 인도는 경제적 자

3) 황준헌, 김승일 옮김, 『조선책략』, 범우사, 2007.

원의 측면에서 주목받았고, 아프리카나 인도에서의 교육 정책은 ‘훌륭한 아프리카인’과 같은 것을 지향했다.

반면, 프랑스는 프랑스인으로서의 동화정책을 폈다. 교육에 있어서도 영국은 아프리카 교육정책에서 원주민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원주민어를 교수 용어로 채택하고, 아프리카어 문법의 사용, 교제의 아프리카어 편찬을 추구했지만, 프랑스는 원주민 아동에게 역사교육과 모국어 사용을 금지했다. 베트남에서 프랑스어의 강요와 함께 한자의 사라짐, 월남 문자 자포(字喃)의 주변화와 프랑스식 알파벳의 채택이 이루어졌다.⁴⁾ 일본은 프랑스의 이 직접 통치 방식을 전범으로 삼으면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구축해갔다. 그러나 일선동조론은 이미 그 안에 모순을 배태하고 있었다. 이 모순이 식민지 청년들을 이중구속 상황으로 몰고 가는 폭력이 되었다.

메이지 국가라는 상징계 구축 과정은 일본에서 근대 천황제이데올로기의 성립이라는 문제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황조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이래 신성을 계승한 신권의 절대성, 그 상징적 핵심에 천황을 위치시키는 관점은 18세기 후반부터 부상했다. 만세일계 황통이란 역성혁명을 되풀이한 중국이나 조선보다 일본인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상징 천황제의 구축과 동시에 19세기 초반부터 조선 속국관의 단발적 제시, 피차별부락과 같은 내적 차별 구조 문제를 근린 아시아에 대한 일본 민족 우월성의 근거로 전가하는 이민족 기원설들이 학적 아우라를 띄고 빈번히 등장했다. 조선 멸시관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서히 일본 열도의 타자 이해 방식의 한 코드로 떠올랐다.⁵⁾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은 일본의 제국화, 문명화 논리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야만을 발견함으로써 문명임을 입증하는 방식이었다. 대만 영유와 한일합방이라는 물적 식민지의 확보를 통해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조선이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것은 이미 당연했다. 겁쟁이, 비굴, 경박, 고식, 무지, 몽매 등의 부정적 수식어를 동반한 조선인들이란 1876년 개항 무렵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미지이기도 했다.⁶⁾ 이토록 불쌍한 조선인들과 한 조상을 공유한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가? 게다가 조선인은 결코 일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존재의 식민성이 일본을 제국으로 만들어주는 전제조건인데, 그 조건 자체를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이다.

4) 손인수, 「일제하 식민지 교육」, 『한국교육사』, 문음사, 1998. 의 625쪽.

5) 일선동조론에 관해서는 김수영, 「동화 이데올로기 - 그 이상과 현실의 변주」, 『한민족문화학회』, 2007. ; 박진우,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조선 - 1910~2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일본사학회, 2007. 참고.

6) 박진우, 「근대천황상과 조선멸시관의 형성」,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제이앤제, 2004. ; 근대 일본의 조선 인식에 관해서는 나카쓰카 아키라, 성해준 옮김, 『근대일본의 조선인식』, 청어람 미디어, 2005. 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동인이라는 명목은 조선 지식인들로 하여금 식민화의 이행을 통해 근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⁷⁾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프랑스인으로 동화하려는 까닭은 그들이 열등하기 때문이다. 열등한 인종의 개량이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되어갔다. 프랑스와 달리 일본이 식민지 조선인을 식민화시킨 까닭은 그들이 열등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상을 운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같은 아버지 밑에서의 이 운명적 차이, 즉 제국화와 식민화란 출생의 비밀은 ‘우연’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 우연을 필연적 조건으로 전화해야 하는 것이 일시동인의 논리 과제였다.

제1차 조선 교육령, 제1장 강령은 일본어 보급이라는 목표, ‘충량한 국민’의 제조, 실업 교육을 통한 우민화라는 표면적 흐름 속에 조선에서의 고등 교육 자체를 봉쇄했다. 조선 교육령은 합방과 함께 조선인을 일본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를 표방했지만, 실제 운용의 측면에서는 조선인들에게 열등한 수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이 실시되기 전까지 일본의 ‘제국-식민지’ 교육 정책은 복선형을 추구했다. 식민지와 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를 차별화한 것이다. 조선인 학교의 경우 초등교육 기관인 보통학교가 그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중등 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도 4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본인 초등 교육기관인 심상소학교가 6년, 중등 교육기관인 중학교가 5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압축적으로 제공된다고 해도 질적 저하가 진행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전문 학교는 3년 또는 4년으로 정해졌지만, 대학에 관한 규정은 아예 없었다. 전문학교의 세부 세칙은 1915년이 되어야 마련되고, 이에 따라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 4개의 관립전문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다른 지방은 전무했다. 1917년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고, 보성전문은 1922년에야 인가를 받았다.⁸⁾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식민지와 제국이 지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제 상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즉 식민지-제국 관계에서 상급학교 진학과, 동급학교 전학 사이에 간단하게는 입학과 전학 시기의 차이에 따른 시간적 공백, 더 깊이 들어가면 지적 이동 사이에 불가피하게 ‘비약’을 필요로 함으로써, 동시에 그 ‘비약’을 메울 제도적 방법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효과를 생산하게 된

7) 김수영, 「동화 이데올로기 - 그 이상과 현실의 변주」, 『한민족문화연구』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157쪽. ; 정상우,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지식인층의 인식」, 『한국사론』4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1. 을 참고한다.

8)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의 99~100쪽, 120쪽. ; 박찬승, 앞의 글, 115쪽 참고.

다. 실제로 고등교육을 목표로 현해탄을 건넌것지만, 1910년대 유학생들 다수가 진학한 학교는 예비학교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급할 장소와 학적 인프라의 전무로 인해 중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출구를 찾고자 했지만, 그것은 간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등교육의 부재 속에서 1910년대 조선에는 입신출세담이 많이 이야기되었다. 물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대개 일본 유학생들이었다. 동아시아 근대에서 입신출세담의 계보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을 권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늘 아래 사람은 사람으로서만 존재한다! 이 문구는 당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인간의 지력과 성실의 가능성을 전제하며 학문의 중요함을 설파했던 이 한 편의 책은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교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꺼리지 마라.”로 사람의 새 미래를 열어보였다.

입신출세담의 주인공이 미국 유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은 미국 유학이 본격화되는 1920년대를 기다려야 한다. 문학이 이 테마를 빨리 선취했던 것은 상상력을 통해 훨씬 더 힘차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무정』에는 김선영의 미국 유학에 대한 허영이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이태준의 「불멸의 함성」(『조선중앙일보』, 1934. 5.15~1935.3.30)에서처럼 미국에 가지도 않은 작가가 미국 유학 경험을 생생하게 장편으로 서사화하는 일도 있었다.

고등교육의 최종 수혜라는 코스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 흥미 거리이지만은 않았다. 입신출세담에 기댄 근대 학력주의의 가열이란 제국 일본의 식민화에 제도적으로 편승하겠다는 의지의 발열이기도 하다. 메이지 일본의 입신출세가 관료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입신출세란 제국의 관료가 되어 금위환향하는 것을 마지막 코스로 삼게 되기 때문이다. 제국 일본의 공교육 수혜자란 결국 제국 일본의 관료 시스템에 편입하여, 식민지 관료로서 조선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력을 완수해야 했다.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의 전공 상황에서 법정, 경제, 사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당시 유학생들의 관료 지향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그런 의미에서 입신출세담의 한편에서 생산된 1910년대 해외 유학 체험의 서사의 주인공들이 귀환하지 않는 점은 흥미롭다. 1910년대 해외 유학 서사에서 안전하게 귀환을 완료하는 것은 나혜석의 ‘경희’가 거의 유일하다. 물론 그녀의 유학 이후 삶은 순탄치 않았다. 조선 내부에서 고등교육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결핍을 메우려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 유학생 비율은 함방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며 이 숫자의 회복은 1910년대 후반에 가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지광』제6호가 정리하고 있는 독일유학생 수를 보면 1915년까지도 1909년, 함방 직전의 분위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관비 유학생의 수도 1912년 50명에서 1917년에는 심지어 17명까지 내려간다. 해외 유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비 유학생이라고 마음껏 떠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조선 총독부 유학생 규정’에서는 “사비(私費)로써 일본에 유학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이수학과, 입학 및 출발시기를 명기하고 이력서를 첨부하여 지방장관을 거쳐 조선총독부에 제출할 것. 이에 대해 지방장관은 본인의 성품 및 부형의 생업과 재산상황까지 명백히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 군수, 부윤에게는 유학을 막아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가능한 한 조선 내에서 수업하도록 설득”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현재 미국 유학시에 필요한 재산증명처럼 당시 일본에 유학을 희망하는 자도 학자금을 책임질만한 2명의 보증인 연서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했다.⁹⁾ 메이지 중반부터 가속화되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일본 유학 권유와 일본 대중들이 아시아 제국으로부터의 유학생 환영은 1910년 이후 급속히 냉각된다.

1919년을 지나면 표면적으로 유학생과 노동자의 이주에 대해 관대해진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제국으로의 지적 도향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강화되어 갔다. 전체적으로 보아 1919년까지 유학생 수는 대략 500~600선을 달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914년 중국인 일본 유학생이 3,796명이었던 것과 대조했을 때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인다. 1918년에 중국인 유학생은 6천여 명, 대만인 유학생은 6백명이었다.¹⁰⁾ 동경 시내 해외 유학생들 중 태반은 동아시아의 중국 학생들이었고, 조선인들은 그에 비하면 대단히 소규모였으며, 일본의 해외 유학생들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군분투해야 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떠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머물기도 힘들었다. 1911년(명치 44년) 6월 내무부는 조선의 각도 장관 앞으로 ‘조선 유학생 감독에 관한 건’을 공문 내리는데, 이와 함께 총독부가 내린 전문 25조의 ‘조선 총독부 유학생 규정’은 이렇듯 관비생은 물론 사비생에게까지 엄격한 감독 규정을 실시했다. 조선인 유학생 감독의 역사는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호조약 체결 후 통감부는 1906년 1월 주일공사관 자리에 ‘유학생감독부’를 설치한다. 1910년대까지는 이 감독관의 자리에 조선인이 있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감독부가 조선 유학생 독학부(朝鮮留學生督學部)로 이름을 바꾸고, 사무를 동양협회(東洋協

9) 박찬승, 「1910년대 독일유학과 유학생활」, 앞의 글, 117쪽. ; 관련 자료는 『독립운동사자료집』13. 독립운동사 편찬 위원회, 1977, 1103~1106쪽 참고.

10) 『학지광』17호의 79쪽 참고. ; 박찬승, 앞의 글, 116쪽 참고.

會)에 위탁하면서 감독관이 일본인으로 바뀌게 된다. 『만세전』의 이인화를 감독하던 사람이 조선인이었던 것은 작품의 배경이 1919년 3·1운동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인에 대한 요시찰 제도는 1916년 7월 1일 일본 내무성 훈령 제618호 「요시찰 조선인 관찰 내규(要視察朝鮮人觀察內規)」에서 비롯되었다. 내규는 시찰 대상을 갑호(甲號)와 을호(乙號)로 나누는데 ‘배일사상’을 갖고 있거나 가질 우려가 있는 자, 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자, 외국의 독립운동가들과 교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이광수 같은 경우도 친일로 이름 드높지만 꽤 오랫동안 갑호 감시 대상자였다. 다양한 경로로 동경에 거주하는 지식인들과 접촉 가능한 유학생들은 요시찰 대상으로 곧바로 주목되었다. 일본 거주 조선인들에 대한 명부 작성은 1911년부터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감시 대상자들 명부는 해마다 철저하게 갱신되었다.

해외로 떠난 유학생들이 조선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나’로 주체화되기까지, 다시 말해 입신출세가 개인과 자기 가족의 명리를 위한 길로 해석되기까지는 1881년부터 거의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920년대를 전후로 해서 문명론은 문화론으로 재편되고 미적 주체의 근대를 부르짖으며 정치적 삶이 아니라 예술적 삶을 풍경화하는 내면이 있는 유학생이 등장한다. 동시에 한국 근대 소설에는 엄청난 수의 룬펜이 등장하게 된다. 현진건의 빈처는 1921년 작품이다. 조선 출신이라는 것이 일본을 포함한 구미 제국에서 살고 배우는 데에 결정적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는 인식이 문학 작품 속에서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1920년대다. 1919년 이후 격증한 항학렬과 1923년 관동대진재에 따른 일본적 문명화에 대한 실망감은 상해로, 구미로 유학처를 다변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다변화는 제국 일본의 식민지 지식 억제책의 반동적 효과이기도 했다.

1920년대 일본 유학생 수는 1919년에 비해 두 배나 된다. 1911년에 유학생 억제를 위해 만들었던 「조선총독부 유학생 규정」이 폐지되고 ‘재일본관비조선학생규정’이 제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1920년 11월 총독부는 관비유학생과 사비유학생에 모두 적용하던 조선총독부유학생규정을 철폐하고 관비유학생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사비유학생 도일은 상당히 자유스러워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22년에는 조선인의 일본도향 자체를 문제 삼던 규정도 철폐된다.

1922년 2월에 조선교육령이 개정된다. 이 교육령은 조선 내에서의 교육이 일본으로 직접 이전될 수 있도록 제국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전체의 시스템화 속에 놓여있는 정책이기도 했다. 보통학교 수업연한은 6년으로 늘어나고 고등보통학교는 5년으로 늘어나서 일본의 중학교와 같게 되었다.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일본의 고등여학교와 같이 4년으로 늘렸다. 조선에서의 학력을 기반으로 일본 내의 전문학교 이상 진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실현에 옮겨지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동아일보』1923년 1월 19일에 발표된 「上級校 입학 자격 문제로 제1고보 상급생 대동요」라는 기사는 이러한 학제의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잡음과 시행에 있어서의 불성실을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게 한다. 조선의 학력인정 문제에 대해 일본 당국자의 불신도 짐작할 수 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싶다는 학생들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현해탄을 건너오는 식민지 청년들을 제국은 불안해하기도 하면서 무시했다. 그들의 ‘무성의’는 불안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1923년 9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던 신전(神田) 지역의 건물은 거의 파괴되어 많은 수의 학생이 피난해야 했다. 겨우 유학생 독학부를 찾아갈 수 있었던 학생들은 약 9백 명 정도였으므로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살해당한 절대 다수는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다. 지진과 함께 불어 닥친 흉흉한 소문은 조선인 사냥이라는 형태의 민족탄압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한 곳에 수용될 수 있어서 함께 동경에서 생활했던 노동자들에 비해 피해는 덜 입었지만 진재 이후 나타난 동경 시내의 조선인 불신에 대한 공포를 안고 이들은 서둘러 귀국한다.

1923년에 유학생 수가 급하락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관동대진재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초반 일본 내의 분위기 또한 변하고 있었다. 일본 내 사회주의가 활력을 찾아가면서 김기진 같은 식민지 청년에게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사회주의 문인(아소 오 하사시(麻生久))도 나타났다. 관동대진재 때 문제가 되었던 불령선인이란 정확하게는 조선인 사회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1920년대 초반 일본 사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일본 지식인들의 사회주의자화였다.

4. 제국 일본에서 탈출하려면?

식민지가 된 조선 땅에서 입신출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천일이다. 그러나 근대적 지식 자체를 다 던져 버리고 산으로 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다. 지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근대의 또 다른 가능성과도 만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한 많은 젊은이들은 중국이나 구미로 눈을 돌리게 된다. 관동대지진의 충격으로 서둘러 돌아왔던 청년들은 일본 유학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고해보았다.

서둘러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경성제국대학(1924년 경성제국대학 관제 공포, 1926년 개교)은 없었다. 또 경성대학의 존재 여하를 막론하고 조선의 지적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

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다시 떠나기 시작했다. 이때 부각된 장소는 ‘중국’이다. 1919년 이후 많은 독립지사들이 이미 상해 등지로 건너간 바 있다. 관동대진재 이후부터는 중국 유학이 하나의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1925년 무렵에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학습루트로 선택되고 있었다. 엄청난 인파가 중국으로 떠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여권을 기다리곤 했다. 1920년 중반을 거치면서는 여성의 해외 유학도 상례화되고 있었다.

일본유학에서 중국유학으로 유학붐을 뒤흔 대표적인 인물이 주요한, 주요섭 형제다. 주요한이 현해탄을 몰래 빠져나갈 때 일본인이 그를 달래어서 학교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피천득은 이 형제의 일화와 무용담에 감명받아 상해로 유학을 떠났다. 중국 유학도 북경, 남경, 상해가 다 다른 이유에서 선택되었다. 특히 상해는 그 국제성에서, 그리고 임시정부가 있다는 정치적 의미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려는 젊은이들의 무대가 되었다. 또 상해 등지에는 일찍부터 들어와 있던 범세계적 기독교 학교가 많았다. 상해의 기독교 학교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 유학을 곧장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다수 미국 유학생들은 중국을 경유해서 태평양을 건넜던 것으로 보인다. 1912년 <중화민국국적법>의 반포는 외국인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중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게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 국적을 갖고 취직하거나 구미 유학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유학생뿐만 아니라 구미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혹은 사진 결혼 등으로 매년 수백 명의 지원자가 상해로 몰려들었다고 한다.¹¹⁾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배우고자 한 것 역시 중국의 근대화도 중국이 소화시킨 서양 근대도 아니었다.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의 동경과 중국의 상해가 지적으로 좀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상식이 된다. 제국 일본이 특정한 정보를 거른다는 것이다. 상해는 ‘최신사조의 접촉’이 가능한 까닭에 일본보다 낫다고 평가되었다. 이 사조라는 것에는 감히 제국 일본이 겹나서 품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다. 반제국주의를 전면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었다. 아나키즘과 맑시즘을 비롯한 여타의 최신사조의 환류가 동경 이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상해는 이미 메트로폴리스였다. 이곳으로 떠난 유학생들은 귀국하지 않는다. 중국 유학을 학습의 마지막 관문으로 생각한 다수의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독립운동가가 되거나, 독립운동가 양성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었다. 주요섭이 그린 『첫사랑값』(1924~1927)의 주인공 유경이는 중국에서 배운 자질과 학맥을 가지고 조선 내에서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미국으로 떠난 유학생들도 잘 돌아오지 않았다. 화려한 물질문명에 경도되어 그곳 사회에 정착하거나, 조선으로 돌아와 기독교 문명의 전파에 힘 쏟는 교육가가 되곤 했다. 식민

11) 여운형, 「자서전 2-나의 상해 시대」, 『삼천리』, 1932.10.

지 조선의 관료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 학벌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았다. 식민지의 관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력 절차는 ‘제국대학-고등문관’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1930년대나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근대 인간학’ 제5장 참고) 하지만 상해에 가서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도 내가 조선인이 아닐 수는 없었다. 심지어 진정 조선인이길 포기하고자 했지만, 조선인으로 대우해주는 이들 덕분에 ‘나’는 언제나 두 개의 혀를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미국 유학이 지적 근대화의 방법으로 조선과 일본 안에서 완전히 포기되는 것은 1930년대 후반이다.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극도의 회의 속에서 진행된 대동아 공영의 담론, 태평양 전쟁의 사상들은 미국 문명의 미숙을 비판하면서 동양 문명의 기치를 내세웠다.¹²⁾ 그렇지만 메이지 유신(1867)부터 알뜰히 다져져 온 서양 지향의 온갖 감수성들을 하루 아침에 철회하기는 어려웠던 듯 1939년과 1940년대 『문장』과 『인문평론』 지에는 커피와 재즈 음악에 대한 향수를 놓치지 못하는 룸펜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도 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산 근대는 조선땅에서 퇴각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급속도로 매우는 것은 미국산 지식 제도들이었다. 일본 박사를 미국 박사로 대체하고, 귀환한 미국 박사들에 의해 국내 박사가 배출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5. 네 혀를 내어 놓아라

해외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잊었다. 경계 위에서 당한 모멸감과 때때로의 자유를 망각해야만 저편 혹은 이편 사회에 귀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 위에서 맛본 경험들로부터 떠날 수 없다면 계속해서 해외를 떠돌며 공부만 하거나, 혹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망명해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식민지 조선의 근대 문학에서 그토록 많은 룸펜들이 활약했던 것을 무슨 정치적 망명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경계를 무시하거나 경계로부터 떠나는 일이 그와 같은 무기력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는 이 쪽에서는 저 편의 말을, 저 편에서는 이 편의 말을 전한다. 두 개의 언어 공동체를 실체화시키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는 자기 존재의 분열을 완전히 잊어야 한다. 한때 두 개의 언어 사이에서 찢겨져 나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 비밀로 하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언어군이 그를 잡아 먹을 것이다. 차라리 백 개의 언어를 가지기를. 한 번도 말해진 적이 없는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기를.

12) 나시타니 게이치 외, 김정원 외 옮김, 『태평양전쟁의 사상』(이매진, 2007) 참고.

일제말기 문학 - 협력과 저항 사이의 목소리

김 성 연

동덕여자대학교

일제말기 문학 - 협력과 저항 사이의 목소리

◆ 목 차 ◆

1. 일제말기 문학의 연구
2. 이중언어의 문제-공식언어와 생활언어의 공존과 균열
3. 사상의 문제-침략과 탈주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
4. 문학작품에 구현된 ‘제휴’와 ‘동화’
5. 젠더의 문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 그 사이의 여성
6. 서발턴(하위주체)의 문제

1. 일제말기 문학의 연구

1931년 만주사변발발부터 1937년 중일전쟁(지나사변), 1941년 진주만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이 끝나는 1945년까지를 일본은 ‘15년 전쟁기’라 부른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1936년 미나미지로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며 내선일체를 첫 번째 통치방침으로 내세웠고, 이것은 중일전쟁을 거치며 본격화되어 1937년엔 지원병을 모집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시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1937년 이후를 ‘사상통제기간’, 혹은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총동원체제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문학의 문제에서 당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1939년이다. 1939년 4월에 총독부의 주선으로 각 출판사의 대표·지도자가 북쪽 지방에서 싸우는 황군을 위로하기 위해 파견되는데, ‘북지전선위문단’이라는 이 방문단의 파견은 최초로 문인들이 당대 정치상황에 개입한 사건이다. 이후 1939년 10월 조선문인협회가 결성된다. 1939년은 문학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이 논의는 해방 전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언어의 문제에서 일제말기란 1939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일제말기의 문학은 암흑기 문학, 친일 문학, 파시즘 문학 등으로 지칭되는데, 각각의 용어가 가지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1949년 백철이 『조선신문학사조사』에서 일제말기(1939~45)의 문학을 ‘암흑기’

문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이 시기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이후 1969년 조연현이 『한국현대문학사』 증보개정판에서 역시 이 시기를 문학의 ‘암흑기’라고 표현하였다. ‘암흑기’ 문학이라는 용어는 이 시기를 문학의 공백기로 보고 있다. 민족문학만을 국문학으로 보는 민족사적 욕망과 개인의 윤리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한 비자발적 다수는 용서하되, 자발적 소수는 단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암흑기’ 곧 문학의 공백기라는 표현을 불러온 것이다.

1966년 임종국은 『친일문학론』에서 일본어로 교육받고 일본어전용으로 창작한 앞세대 문인들을 부정하며 ‘반일(反日)’을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한다. 그러나 그는 조선인에 의해 일본어로 창작되었거나 일본에서 발표된 문학은 비판하면서도, 일본인이나 조선인이 조선어로 창작하여 조선에서 발표한 문학은 긍정한다.

암흑기 문학이나 친일문학은 공통적으로 일제를 가시적 권력으로 상정하고, 민족문학이라는 대척점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대립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파시즘 문학이라는 용어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대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주의 조선인들이 ‘이등국민’으로서 중국인을 바라보는 태도는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과 일치하는데, 이것은 일본담론에 의해서 구조화된 조선의 ‘식민지적 무의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욕망구조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두 가지가 상동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파시즘의 측면에서 식민주의와 관련시키면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당대인의 욕망은 볼 수 없고, 모든 것을 식민주의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일시 사이에서 균열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 문학’이다. 국민문학은 우선, 파시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점(구조의 균열지점)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시도, 협력과 저항의 사이, 즉 공존의 지점(호미바바의 양가성)을 탐구하여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항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일제말기 문학의 해석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저항과 협력을 가로지르는 욕망, 협력도 저항도 아니면서 자신의 욕망을 확보하는 문제, 예를 들어 소수자의 문제(들뢰즈의 탈주)를 찾아내고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새로운 해석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지식인의 논리이므로 문학에서 소수자의 논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문학을 넘어 문화연구로 나아가 이시기 대중 혹은 여성 등의 욕망을 연구함으로써 소수자의 논리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이중언어의 문제-공식언어와 생활언어의 공존과 균열

1) 1911년 조선어 교육령

일본어의 ‘국어’ 지정으로 일본어는 공식언어가 되고 조선어는 생활언어가 된다. 문학은 공식언어로 창작되므로 생활언어인 ‘조선어’로 창작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머릿속에서 번역하거나 일본어로 형상화된 지식을 조선어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이 공식언어인 ‘일본어’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의식적으로는 한글문학이 창작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중언어 문학이 된다. 이러한 창작의 좋은 예가 김사량, 장혁주 등이다. 그들이 일본어로 창작한 소설은 문단의 인정을 받았으나 조선어로 쓴 소설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은 조선어로 문학수업은 받지 못했으나, 생활언어로 주변의 대화나 일상을 통해 조선어를 알고 있었다. 그러한 생활언어를 바탕으로 한 창작은 공식언어로 쓴 것보다 수준이 낮았던 것이다.

이 외에 한글 전용으로 창작되어 신문에 연재되던 박태원이나 염상섭 소설들에는 일본어가 일상어로 자연스럽게 쓰이며 혼용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 밖에 많은 한글 소설에서 특히 지식인들의 대화에는 조선어와 일본어가 혼용되고 있다. 일본어가 조선어 속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이중언어의 현상이다.

2) 1938. 4 조선어 수의과목화

1938년은 조선어 문학에서 어떤 언어를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좌담회 등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어로 조선을 재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문인들은 일본어로 재현 불가능한 본질적인 조선의 것이 있다는 문학적 논리를 내세우는 입장과, 실리와 복리적인 면에서 공용어인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국어의 논리를 가진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한다. 이 중에 임화는 작가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언어로 창작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김사량은 조선문학은 조선어를 쓰는 대다수 조선민중을 위해 조선어로 써야 하지만, 조선의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 다 이중언어 글쓰기를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언어는 생각과 글쓰기가 분리된 bilingual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에 침투하여 서로의 언어체계를 바꿔놓는 dialogic이다. 조선어 속에 일본어가 들어오듯이 일본어 속에 조선어가 들어가며 일본어 안에 조선어를 포함시켜 일본어를 비틀고 죽이는 것이 이중어 창작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어를 ‘국어’로 지정한 일제에 대한 저항도 협력도 아닌 새로운 균열의 지점이며, 일본어라는 식민지배권력을 파괴하고 해체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

3. 사상의 문제-침략과 탈주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과정을 두고 많은 논란을 벌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신질서론’은 ‘동아협동체론’과 ‘동아연맹론’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동아협동체론’이란 곧 전시 변혁론으로 전쟁을 통해 일본을 개조하자는 입장이자다. 오자키 호쓰미 등 전향공산주의자는 “전시변혁론”을 주장하는데, 전쟁을 통해 민족주의 탈퇴, 자본주의 초극, 자유주의 초극 등 근대의 초극을 이뤄내고 일본을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가 통제를 통해 민중을 사회주의화 하는 국가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목표는 달랐지만 “국가 통제”라는 방법의 부분에서 우익과 좌익은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아연맹체론’은 요컨대 미국과 일본이 최종전을 치르기 위해 국지전인 중일전을 멈추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시하라 간지는 관동군 사령관 도조 히데키와 대립하고 중령으로 예편한 후 동아연맹을 만든다. 동아연맹이 주장한 것은 아시아의 ‘경제블록화’와 ‘일본군 지휘하의 국방공동’, 이 외 ‘각국 자치권의 인정’ 등이었다. ‘자치권의 인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은 동아연맹을 지지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조선에서 동아연맹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금지하여 조선의 동아연맹은 지하세력화 하게 된다.

살펴보았듯이 ‘동아협동체론’과 ‘동아연맹론’은 본래 일본 제국주의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침략을 다각화하기 위한 욕망으로 기획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지식인이 자치를 위해 동아연맹을 지지한 것과 같이, 여기에 기탁한 다른 식민지인들은 제국주의로부터 탈주하기 위한 욕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용한다. 즉 같은 지점에 다른 욕망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인이 ‘동아연맹’이나 ‘동아협동

체’에 찬동했거나 반대했던 것은 단순한 친일의 문제나 저항의 문제로만 양분할 수는 없는 균열의 지점을 보여준다.

1936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가 첫 번째 통치방침으로 내세운 내선일체(內鮮一體)는, 계속된 식민지 개척으로 조선이 점차 제국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 바쁘게 일어난다. 내선일체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일본어를 표준어로 하고 조선어를 말살하며 내선결혼을 하여 조선인이 문화적으로나 우생학적으로 완전히 일본인이 되는 완전동화론이 첫 번째 것이다. 이것은 현영섭을 위시한 ‘녹기연맹’과 1944년 이후의 최재서에게 지지를 받는다. 두 번째 입장은 조선의 문화를 보전하는 가운데 일본과 제휴하여 일본국민이 되는 평행제휴론이다. 이것은 『국민문학』 파의 사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국민문학』은 최초 기획단계에서 한글과 일본어의 비율을 2:1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어로 쓴 조선인의 문학은 그 자체가 인종적 언어적으로 ‘완전동화’와 ‘평행제휴’ 두 가지를 모두 파괴, 해체한다. 일본인이 일본어로 일본정신을 구현해야 “국민문학”인데, 조선인이 일본어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균열된 정신을 구현했으므로 그것은 진정한 국민도 국민문학도 아닌 것이다.

4. 문학작품에 구현된 ‘제휴’와 ‘동화’

내선일체의 문제는 ‘일본인 되기’의 문제이며 이는 곧 ‘국민 되기’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인으로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평행제휴’하여 일본제국의 구성원이 되거나, 조선인을 버리고 완전한 일본국민으로 ‘완전동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당시의 문학들은 다음과 같이 형상화하고 있다.

이효석은 「녹의 탑」에서 경성제대 조수인 조선인 영민과 일본인 아가씨 요코, 자작의 딸인 소희와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다. 삼각관계에 빠진 요코가 자살을 기도하자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유력 강사후보였던 영민은 임용에서 탈락한다. 이후 조선인 영민과의 만남을 반대했던 외삼촌을 따라간 요코는 병이 들었는데, 이때 요코에게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은 혈액형이 일치하는 영민 뿐이었다. 헌혈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영민과 요코는 결혼하여 조선으로 가고, 요코는 한복을 입고 조선에 입

국한다. 이후 영민은 사립학교 선생이 된다. 여기서 이효석은 일본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다스리는데 사용하던 우생학의 순혈주의 논리를 조롱하기 위한 장치로 “혈액형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한설야는 「대륙」에서 하야시라는 청년과 오야마라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하야시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조선인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야시 또한 아버지의 뒤를 따르려 한다. 전향좌익인 이들 부자는 국가사회주의자이다. 소련의 인터내셔널리즘을 비판하며 그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일본 고유의 공산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바로 일본 좌익의 전향 논리이다. 이들은 따라서 일본(일본 국가)를 인정한다. 오야마는 마리라는 총명한 만주족 아가씨와 연애를 하는데, 마리는 오야마의 민족적 우월감을 공격한다. 이들은 결국 결혼하게 된다. 한설야는 국가사회주의 사업(하야시)과 민족결합(오야마)의 문제를 다루며 일본에 민족적 우월감을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평등한 상태에서 결합해야 오족협화가 가능하다는 하야시의 논리는 곧 한설야의 논리이다.

김사량은 「빛속으로」의 하루오를 통해 일본인으로서의 자신과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을 대등하게 공존시키기를 바라는 메시지(평행제휴론)을 전달한다. 일본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김사량의 ‘일본인 되기’ 방법이다. 「광명」에서는 일본인 아내 집에 입적해 일본인 행세를 하던 한 남자가 아내와 딸이 조선인 식모를 구박하자 식모의 권리를 찾아주면서 내선일체 가정의 반성을 이끌어 낸다. 역시 평행제휴론에 입각해, 조선과 일본의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내선일체의 방법을 올바른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이석훈은 비주류 신인으로서 다른 문인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동화를 통한 ‘일본인 되기’를 선택한다. 「고요한 폭풍」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인 되기의 서사는 거대권력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 내용은 주인공인 소설가 박태민이 1941년 12월 전조선순회문인강연회에 참석하여 겪는 사건과 그가 어떻게 일본인이 되려하는가의 이야기이다. 박태민은 비주류 문인이므로 순회강연도 오지인 함경도로 떠나게 된다. 여행 도중 백계러시아인에게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듣게 되고, 박태민은 내지에서 살든가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라”며 일본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동의로의 여행」에서는 신사참배를 통해 일본인이 되려는 결의를 다지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선령」의 주인공도 역시 박태민인데, 그는 녹기연맹에 가입하여 신사참배를 한다. 이때 박태민이 참배에 늦자 연맹의 일본인이 그를 나무

란다. 이를 계기로 주인공은 연맹에 회의를 갖고 탈퇴 후 만주로 떠난다. 이 소설은 이석훈이 조선서 겪은 일을 만주에서 써서 『국민문학』에 보낸 것이다. 여기서 신사참배에 늦어 꾸짖음을 당하는 장면은 순혈주의라는 장벽을 깰 수 없어 “일본인 되기”의 불가능성을 깨닫는 장면일 것이다.

최재서는 1944년 쓴 「민족의 결혼」에서 유명한 신라시대 김유신, 김춘추, 김유신의 여동생 아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재구성한다. 김유신을 가야인, 6두품으로 설정하여, 신라 성골인 춘추와 아지의 관계를 인정치 않는 귀족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다. 설화에 민족과 계급의 이야기를 덧붙여 “민족 차별주의에 대한 김유신의 투쟁”을 그리고자 했다. 이것은 결국 일본과 조선 사이의 민족차별을 반영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아지가 죽으면 고구려로 건너가 신라에 대항하겠다”는 유신의 결심은 중국, 유럽으로 건너가 일본에 대항하겠다는 조선인의 결심이 될 수 있고, 이는 순혈주의에의 대항으로 볼 수 있다.

5. 젠더의 문제-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 그 사이의 여성

제국주의(문명)은 민족주의(야만)에 신음하는 여성을 구원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동원이 여성에게 의미하는 것은 여성이 재생산 기능에서 해방되어 한 개체로 새로운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 곧 해방이다. 이와 반대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물든(포섭된, 침탈) 여성을 순수한 모습 그대로 지켜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여성을 위한 것이거나 여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대 담론들이 각자 호명한 여성의 역할을 더욱 강요할 뿐이다.

정인택 「돌아보지 않으리」는 가미가제에 나간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여기서 여성의 역할은 “궁극의 어머니”이다. 여성을 “궁극의 어머니”로 호명하며 주체로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남성작가의 여성소설에서 종종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작품은 여성의 목소리를 남성에 의해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재현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쟁탈전과 같이 여성 자신의 서사를 드러내지 못한다.

최정희 「야국초」의 주인공 “나”는 유부남에게 버림받고 아들 승일을 키우는 미혼모이다. “나”는 승일과 지원병 훈련소 견학을 하던 날, ‘승일을 훌륭한 제국의 군인으로 키워 당신에 대한 복수, 나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편지를 승일의 친부에게 쓴다. 조선의 가부장제도에서 희생당한 여성 “나”는 이를 넘어서기(복수하기) 위

해 제국주의(제국의 군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조선 가부장제도(민족주의)를 부술 수 있는 무기로서 호명된 제국주의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복수’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성의 목소리 편린을 찾아낼 수 있다. 아이를 군인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곧 아이를 죽음 가까이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에 대한 모성을 걸고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다. 민족주의도 제국주의도 아닌 모성이 이 여성을 흔들면서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6. 서발턴(하위주체)의 문제

서발턴의 문제는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는(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하위계층, 넓게는 제3세계의 문제이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언어를 가지지 못하여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 혹은 계층에게 대변되거나 재현 당한다. 다시 말해 제3세계 여성이나 제3세계 프롤레타리아, 농민들은 재현, 표상의 대상이 된다.

민족부르주아지는 이들을 “민족”으로 재현(호명)하거나 “국민”으로 재현(호명)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인민”(민중)으로 재현(호명)한다. 이들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균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가정해 재현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서발턴의 역사는 ‘기억’에 의존해 비논리적인 ‘구술’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복원하는 지식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포함해서 이들의 역사를 재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의 실체는 제국의 공문서에는 없다. 오로지 증언으로만(구술)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군위안부 문제는 기존 민족주의자와 제국주의자의 서사(수사)에서 ‘민족의 강간’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일컬어진다.

그렇다면 공식 기록이 없는 서발턴의 목소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소설은 지식인에 의한 공식기록이다. 그러나 역사기록과는 달리 논리가 아닌, 이야기를 다루므로 지식인이 조작할 수 없는 생생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설은 서발턴의 목소리를 지우는 역할을 하면서도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채만식의 「논 이야기」에서 일제와 군정은 모두 같은 침략자이다. 이를 확대하면 농민에게 국가권력은 모두 같은 침략자일 뿐인 것이다. 「태평천하」에서는 지배자

가 누구이든 상관없고 나의 삶이 중요하다고 부르짖는 주인공이 나온다. 이념이 배제된 생활의 문제에서는 결국 「논 이야기」와 같이 지배권력의 속성은 모두 같은 것이며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정희의 소설 「장미의 집」은 애국반상회의 반장이 되려는 여자 때문에 단란한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이 문제적인 것은, 총독부 명령하달이나 배급의 마지막 단계인 애국반상회가 기존에 황국신민으로서의 총후동원으로 이해되었던 것과는 다른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서이다. 소설에서 사람들은 애국반상회를 소집해도 잘 모이지 않고, 모인 사람들은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며, 명령하달이 안 되는 것은 물론, 황국신민서사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오직 배급할 때만 적극적이다. 일본의 신민도 국민도 아닌 생활인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것이 규율로부터 빗겨가는 서발턴의 삶이며, 안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고유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서발턴의 모습이다.

식민지 근대의 풍경
-이중섭(1916~1956)의 <황소>를 중심으로-

김 현 숙

문화재전문위원

식민지 근대의 풍경

-이중섭(1916~1956)의 <황소>를 중심으로-

◆ 목 차 ◆

1. 작품의 이력
2. 상태와 현황
3. 표현 양식
4. 소 그림의 위상
5. 한국미술 속의 소 그림

이중섭의 <황소>(1956) : 37년만에 공개, 2010년 6월 경매에서 3억 6천만원에 낙찰

1. 작품의 이력

이번에 서울 옥션을 통하여 새롭게 공개된 이중섭의 <황소>는 1972년 현대화랑에서 개최된 <<이중섭 유작전>>에서 전시된 이후 37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 소장가는 1955년 미도파화랑 전시 직후 <황소>를 소장하게 되었으며 1972년 전시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공개한 적이 없다. 소장자 P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 소장의 경위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씨는 평안남도 출신으로 그의 팔촌동생이 평양 근교에 살아서 이중섭과 친분이 있었다. P씨는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이주하여 장충동에서 거주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대구에서 2달가량 있었는데, 이 때 팔촌동생이 동향인 문학과 김이석, 이중섭과 함께 두 세 차례 방문하여 이중섭을 만나게 되었다. 서울 수복 후 명동의 모 다방에서도 몇 번 더 만났으며, 1955년 1월, 장충동 집에 이중섭을 포함하여 동향인 7명 정도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였다. 1955년 미도파화랑 개인전 때 동향인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드로잉 3점을 골라 당시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돈을

김이석에게 건네주었다. 전시 종료 즈음에 P씨가 선택한 드로잉들이 작가의 부인을 그린 것이어서 작가가 갖고 있기를 원하니 다른 작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연락을 김이석을 통해 받았고, 전시 종료 후 받은 작품이 <황소>이다.

P씨는 1972년 현대화랑 유작전 출품을 원하지 않았으나 동향인 화가 박고석의 권유로 출품하였고 이후 집안에 걸어두었다가 1980년경부터 오동상자에 넣어 인감 도장으로 봉인하고 금고에 보관해왔다. 이번의 작품 공개가 마치 신작 발굴과 같은 흥분을 주는 이유는 37년만의 등장이라는 점, 앞서 언급한 1972년의 전시도록과 이후 이중섭기념사업회에서 1979년에 발행한 화집 『大郷 李仲燮』을 제외하고는 십여 종의 이중섭 관련 도서나 카탈로그 등에서도 이 작품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상태와 현황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작품 컨디션이 좋은 편이며 1972년 전시 때 사용한 액자 그대로의 상태로 액자 뒷면에는 “명제 / 황소, 작가명 / 이중섭, 소장자 / 000, 전시기간 / 1972년 3월 19일~3월 29일”이라는 내용이 기입된 작품정리 카드가 부착되어 있다.(참고도판 1) 그림과 나무 유리 액자 사이에 종이 틀을 대었는데, 이 때 종이 틀이 작품의 일부를 가려서 실제 그림의 4면이 약간 가려진 상태로 액자가 부착되었다. 종이 틀을 떼어내서 보니 종이에 가려진 부분과 노출된 부분의 색감 차이가 뚜렷하였다.(참고도판 2, 3) 1972년 전시 도록과 1979년 이중섭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두 도록의 이미지는 그림의 4면이 찢린 상태여서 종이 틀을 제거하지 않고 촬영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소>의 도판 이미지는 1972년 도록에서는 흑백으로(참고도판 4), 1979년 이중섭기념사업회 판에서는 칼라로 인쇄되었는데(참고도판 5), 두 이미지의 사이즈와 찢린 부분이 동일하여 같은 필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칼라로 인쇄된 기념사업회 판의 색감이 뿌옇게 인쇄되어 흰소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엉덩이뼈와 앞다리 윤곽, 뿔과 코, 입술 부분에 에나멜 화이트를 사용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붉은 황색 선이 지배적이다. 1972년 전시의 출품표에도 작품명이 ‘황소’로 기입되었고 1972년 전시 도록과 1979년에 발간된 화집에도 ‘황소’로 기재되었다.

작품의 재질에 대해서는 두 도록이 차이가 나는데, 1972년 도록에는 ‘장판지에 유채’로, 이중섭기념사업회 판에서는 ‘종이에 유채’로 표기되었다. 공개된 <황소>의 재질을 육안으로 조사한 결과 장판지가 아니라 종으로 파악되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장판지라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판지의 콩기름이 배어나와 누런 얼룩 자국이 생기고 그림 자체가 더 누렇게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표현 양식

이중섭을 통영으로 초대하여 제작 여건을 제공해준 공예가 유강열은 <황소>가 통영 시절에 제일 먼저 그린 소 그림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1953년 환도 이후부터 1954년 5월경에 이르는 통영시절은 이중섭 작품의 최절정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소 그림이 많이 그려졌는데, <황소>가 통영시절 제일 먼저 그려진 소 그림이라면 제작연도를 195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처럼 불룩 튀어나오도록 등을 굽추세우고 뒷다리로 뱅뱅하게 버티면서 앞 다리를 들어 전진하는 소의 형상은 이중섭 소의 기본 도상으로 <황소> 외에도 개인소장의 <흰소>와(참고도판 6) 홍익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흰소>(참고도판 7)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통영시절인 1953~1954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고개를 아래로 내린 채 왼편을 바라보며 꼬리를 몸 안쪽으로 돌린 <황소>와 개인소장의 <흰소>는 거의 동일한 도상이다. 한편 굵은 단필로 소의 골격과 생김새를 역동적으로 드러낸 <황소>의 표현법은 홍익대 소장의 <흰소>와 매우 유사하다.

<황소>는 짙은 황색 톤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며, 부분적으로 코와 성기 부분의 분홍색 톤이 강조된 점이 독특하다. 특히 뚜렷하고 큰 눈망울과 옆으로 벌어진 크고 둔탁한 코의 생김새는 한국전쟁 이전 이중섭 소의 순박한 모습으로 앞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두 <흰소>와 차이가 난다. 특히 1942년의 드로잉 <소와 소년>, <소와 여인>에서 토속적인 인물들의 코가 <황소>의 코와 유사하여 매우 흥미롭다.(참고도판 8) 순박한 얼굴의 황소가 전쟁과 이산의 고통 속에서 불안, 분노, 고뇌를 품은 소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세 점의 소 작품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황소>가 통영시절에 가장 먼저 그려졌음을 뒷받침하는 양식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황소>가 다른 두 작품의 기본 도상으로 가장 먼저 제작된 작품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양식적 추이를 통해서도 추적 가능하다. 빠르고 굵은 단선으로 소의 형상을 잡아낸 <황소>는 일필로 휘두른 어깨죽지뼈의 굵은 비백 효과, 역시 일필로 휘둘러진 왼쪽 뒷다리 표현, 빠른 붓질로 꺾인 엉덩이뼈, 고구려 벽화 사신도의 선을 연상시키는 길고 우아한 꼬리 등으로 1950년대 소의 전형을 이루었다. 홍익대 박물관 소장의 <흰소>에서는 <황소>의 기본 도상을 취하되 근육과 근육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면서 고도의 압축된 긴장감을 획득하였다. 한편 개인소장의 <흰소>는 <황소>의 도상을 취하면서도 소의 형상과 움직임에 사실적으로 접근하여 안정된 형태감을 획득하였고 초서체와 같이 흐트러지는 필선으로 도식성을 깨트렸다.

4. 소 그림의 위상

농경사회에서 소는 오랜 시간 동안 농부와 동거동락하면서 힘든 농사를 도맡을 뿐 아니라 온순하고 우직하며 순박한 성품으로 신뢰와 애정을 받아 가축이나 재산 이상의 존재적 의미를 갖는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던 독립영화 ‘위낭소리’에서 팔순의 할아버지와 마흔 살의 소가 둘이 아니었듯이 어린 시절부터 소와 깊이 교감하고 이를 그림으로 담아낸 이중섭에게 소는 자신이자 이웃이며 고난의 시절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우리 민족의 초상이기도 하다. 이중섭의 소는 김경, 송혜수, 최영림, 홍종명 등 주변 동료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소를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들이 제작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말을 주요 소재로 작업했던 권진규가 1972년 현대화랑에서 열린 이중섭 유작전을 두 번이나 보고 와서 <황소>라는 테라코타 두상을 제작한 것도 다음 세대의 미술에까지 미치는 이중섭의 영향력을 입증한다. (참고도판 9)

미술시장에서 이중섭의 작품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작품의 등장, 그것도 이중섭 작품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소의 전신상이자 이중섭 그림으로서는 대작에 속하는 작품이 공개된 것은 적잖이 이슈가 될만하다. 게다가 <황소>는 통영시절 제일 먼저 그려진 소 그림으로 이후 이중섭 소 그림의 기본 도상이 되었으며, 연도가 거의 확실한 기준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다.

5. 한국미술 속의 소 그림

조선시대 - 풍속화, 선종화(尋牛圖,十牛圖)

일제시대 - 이중섭, 진환, 고석

광복 이후 - 이중섭, 김경, 최영림, 송혜수, 박수근, 장욱진

현대 - 이중구, 임옥상 등

李 仲 燮 (1916-1956) 연보

- 1916 평안남도 평원군, 2남1녀의 막내로 출생
1920 5세, 아버지 별세
1923 평양 외가에서 종로 보통학교 입학
1929 14세, 오산 고등보통학교 입학
1934 오산학교 본관 화재 사건
1935 20세, 日本 東京 帝國美術學校 입학
1936 日本 文化學院 美術學部 西洋畫科
1938 自由美術家協會展 協會賞 수상
1940 日本 文化學院 졸업
1943 귀국
1945 마사코(이남덕)와 결혼
최재덕과 벽화(150호, 미도파 백화점)
1946 시집 『응향』 삽화 문제화
첫 아들 출생, 사망
1947 해방기념미술전, <태양을 안고 나는 어린이>
태현 출생
1948 태성 출생
1950 6.25 / 형 이중석 처형
1.4 후퇴시 월남
1951 제주도 서귀포로 피난
1952 부산 피난생활
가족과 이별
1953 선원증 얻어 도일, 3회 신사실편전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이중섭, 백영서)
1955 미도파 화랑 개인전
대구 미국 공보원 개인전
은박지 그림, MoMA에 소장
대구 성가병원, 수도 육군병원, 성베드로 병원 입원
1956 서대문 적십자 병원에서 사망(41세)

* 일본 유학시절 별명 ‘허자비’(평안도 사투리로 허수아비), ‘아고(노)리’

* 그림 철거 사건 : 1953. 제 3회 신사실편전에 <굴뚝>

1955. 미도파 화랑 개인전에서 은박지 그림

소의 말 (이중섭)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나려 이제 여기에
고웁게 나려

두북 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고 두눈 열고

가슴 환히
헤친다

활동사진, 필름에 새겨진 근대의 모습

장 두 식

단국대학교

활동사진, 필름에 새겨진 근대의 모습

◆ 목 차 ◆

1. 담배갑과 활동사진의 관계
2. 기기괴괴별별(奇奇怪怪別別)한 신오락물
3. 북촌극장과 남촌극장의 간격
4. 변사(辯士)와 애활가(愛活家)의 애증
5.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의 전개

1. 담배갑과 활동사진의 관계

한국에 활동사진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00년경이었다. 1897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활동사진’이란 용어는 『皇城新聞』(1901.9.14) 논설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널리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가 정착하기 전에는 ‘팔딱사진’, ‘움직 사진’이라는 용어도 간혹 사용되기도 하였다.

1903년 대한제국 황실이 출자한 <한성전기회사(Seoul Electric Co.)>에서 전차 부설과 운영을 담당했던 미국인 콜브란(Henry Collbran 骨佛安)과 보스트윅(Harry Rice Bostwick 寶時旭)이 전차승객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활동사진을 보여준 것이 최초의 영화 상영이라고 할 수 있다.¹⁾ 활동사진이 흥행이 아니라 전차이용객을 늘리고자 하는 기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색다르다면 색다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활동사진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10전씩을 내야하는 유료관객들이었다. 이 회사에서 이때 활동사진 관람은 공짜가 아니라 10전의 이용료를 내야 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상업적 영화 상영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사진 동대문 전기회사 기계장에서 시설하는 활동사진은 일요급음우를 제헌 외에 매일 하오 팔시로 십시까지 설행하는드 | 대한급구미각국의 생명도시 각종극장이 절승한 광경이 구비하외다. 허입장료 동화 십전

1) 이중거, 「한국영화사 연구」, 『한국영화의 이해』(예니, 1992) pp.20~21 ; 김려실,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삼인, 2006) p.37

<한성전기회사>가 『皇城新聞』(1903.6.23)에 낸 활동사진 광고를 보면 당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일요일과 비가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 매일 여덟시부터 열시까지 상영하였다는 것과 주로 한국과 서양의 절승한 풍물을 내용으로 하였다는 것, 그리고 입장표는 십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에 상영을 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의 주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문에 활동사진 광고까지 냈다는 것은 당시 활동사진 관객 수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일 밤 천여 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한성전기회사가 상영하는 활동사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 같은 해 7월 7일 밤부터 서대문 <협률사>에도 기계를 배치하여 활동사진을 상영하기도 하였다는 『皇城新聞』(1903.7.10)의 기사도 읽을 수 있다.

<한성전기회사>는 자본금 문제로 마찰이 생겨 1905년 미국회사인 <한미전기회사>로 바뀌게 된다. <한미전기회사>는 <영미연초회사>와 제휴하여 활동사진 입장료를 구화 10전 혹은 <영미연초회사>에서 제조한 담배갑 껍질을 받았다.

4월30일(월요일)부터 동문내 한미전기회사에서 하기(夏期) 활동사진을 완상하는데 하기간 우일(雨日)을 제외하고 매일 8시부터 두시간 동안 설행하는데 날마다 각종으로 할터이오니 조량 내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상금(玩賞金)은 매인(每人) 한화 10전으로 정하되 영미연초회사에서 제조한 권련 공갑으로 다음과 같이 영수함.

Old Gold 올드 폴드 10갑 / Hero 히로 10갑 / Hallo 할노 10갑 / Honey 호너 10갑 / Sweetheart 스위트드 10갑 / Drumhead 드럼헤드 20갑 / Goldfish 폴드피쉬 20갑 / 한미전기회사 고백 - <대한매일신보 1906.4.29>

<영미연초회사>는 1906년 <영미트러스트사>가 한국 내에 설립한 담배 판매회사였다. <영미연초회사>는 한국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히로가와상회>와 <무라이상회> 등과 경쟁을 해야 했다. <영미연초회사>는 조선총독부가 1914년 ‘연초세령’을 시행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다양한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일본 담배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담배갑을 모아서 활동사진을 보게 한 것은 판촉행사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영미연초회사>가 직접 영화를 상영한 것이 아니라 <한미전기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동대문 활동사진소와 공동으로 영화를 상영했었다. 1906년 7월 29일자 『만세보』에는 “구경가세 구경가세 동대문안 전기회사로 활동사진 구경가세 전차표 일장이오 공궐연갑 십개만하면 기기괴괴별별(奇奇怪怪別別)한 구경이 다 있다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 시기 <영미연초회사>의 판촉행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박래품인 활동사진이 당시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활동사진을 상영하는 활동사진소도 생기게 되었다. ‘동대문 내 전기회사 활동사진소’는 ‘동대문활동사진소’로 불리다가 1907년 ‘광무대’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또한 “신발명한 일로전쟁 활동사진을 상동 덕국(德國)공관 전에서 매야연희(每夜演戲)하오니 침군자는 래임완상(來臨玩賞)하시를 요홈 단 공일만 휴업하오. 남문내 상동 활동사진사무소 고백”이라는 『皇城新聞』(1905.4.24) 광고를 보면 남대문 안에도 활동사진사무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기기괴괴별별(奇奇怪怪別別)한 신오락물

진기한 근대적 오락물인 활동사진을 보기 위해서 매일 밤 사람들이 <한성전기회사>로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903년 7월 10일자 『皇城新聞』의 기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근일 동대문 내 전기철도회사 중(中)에 활동사진 기계를 구입하여 사녀(士女)의 관완(觀玩)에 공(供)함으로 관완자(觀玩者)가 하오 팔시로 십시까지 전차에 탑재(搭載)하여 분분왕관(紛紛往觀)하는대 인산인해를 족취(簇聚)하여 매석 표가수입액이 백여원이오 차표가도 역연(亦然)한대 삼작일(三昨日)은 신문(新門) 내 협률사에도 여파(如彼) 기계 일좌(一坐)를 배치하고 관완(觀玩)케 함으로 완객(玩客) 유녀(遊女) 수천인(數千人)이 취집(聚集)하얏다가……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최초의 근대적 옥내 상설극장인 <협률사(協律社)>에서도 영사기계를 배치하여 활동사진을 상영하였다는 부분이다. 활동사진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호적과 장구소리에 끌려서 「사진이 나와 논다지」 「사진이 나와 논대」하고 떠드는 틈에 끼여 담뱃갑(卷煙匣) 열장을 들고 드러가니 무대에 미국기와 도선기를 그린 휘장을 쳐놔코 그 휘장 압헤 굵은 줄을 가로매여 놔코 맨-먼저는 少女광대가 나와서 줄을 타고 그 다음에 휘장을 거더치우더니 조선녀자가 춤(僧舞 等)을 몇가지 추구 그리고 불이 꺼지는 고로 「익크 활동사진이 나온다」 하고 기다렸더니 한참이나 캄캄한대로 있다가 식꺼면 외투를 낀 서양사람 한 떼가 웃득웃득서 있는 것이 환-하게 빛취었다.

「나와 논다더니 어데 노-나」 「밤낫 고대로 셋기만 하네그려」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중에 아는 체하는 한분이 「아니야 저-허연 것은 눈이 와서 싸힌 것이고 추어서 여러 죽은 사람들이라오」 하였다

「올-치 그릇킬네 저렇게 꼼짝도 못하고 셋지...」 누구던지 이것은 환등(幻燈)이라고 설명해 주었

드면 조왓을 것을 설명도 안하고 환등을 빗치넛가-나오는 것마다 어러 죽은 사람이라고만 보고 잇섯다. 몇번인지 그 어러 죽은 사람이 빗기여 나오고 나서 아모 인사도 업시 설명도 업시 통지도 업시 그냥 광고도 업시 그냥 환등 뒤꽂해 활동사진이 나왔다.

자막도 업고 댓자긔자도 서양부인 하나가 방속에서 빨내를 하는데 강아지가 드리와서 빨내를 더럽혀 낯은고로 부인이 강아지를 내여 쫓으넛가 었던 키 큰 남자가 하나가 길다란 산양총을 들고 드리와서 총을 노넛가 부인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고 발광을 하다가 호각소리가 후루룩 나고 불이 다시 켜지고 그만 그뿐이엿다. 그나마 사진기사는 조선사람이엿는데 기계를 들고 작란을 하는지 사진이 이구텅이로 다라넛다가 저곳으로 쏠렸갓다가 야단법석이엿다. 다만 그뿐이엿다. 설명도 업시 소개도 업시 음악도 업시 지금 생각하면 어느 희극사진이 못쓰게 되야 내야버린 것을 한토막 끈어가지고 나와든 것이엿다.

(波影, 「活動寫眞 이약이」, 『별건곤』, 1926.12, pp.90~91)

방정환이 활동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를 회상한 글이다. 이 회상기에서 우리는 당시 ‘활동사진소’의 풍경을 엿볼 수가 있다. 그가 답배갑 열장을 들고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보아 <영미연초회사>가 영화를 통해서 판촉을 벌이고 있었던 1906년경이었던 것 같다. 그 때는 그의 나이는 아마 15살 정도였을 것이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방정환에게 활동사진을 본다는 것은 소풍가는 것보다 흥분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초의 영화관람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원인은 극장제도와 영화유통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활동사진의 배급망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필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래서 활동사진 상영 전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광대나 전통 무용 등의 공연이 있었고 때로는 환등기를 틀어주었던 것이다. 방정환의 회상에 의하면 당시 관객들은 환등기와 활동사진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환등기로 스크린에 비춰지는 사진 속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얼어 죽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박래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소극(笑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프닝 속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사진이 상연되었는데 단막 필름이었기 때문에 내러티브도 없고 상영시간도 짧아서 방정환은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 같다. 아직까지 변사가 등장하지 않은 시절이라서 설명이 없는 활동사진은 그냥 ‘팔딱사진’일 뿐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활동사진소’라는 초기 극장이 아직까지 극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장이 갖추고 있는 필름이 완벽하지 않았고 관객들 또한 극장의 규율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판소리 연희를 즐기는 듯이 추임새를 던지는 관객들은 아직까지 영화 관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3. 북촌극장과 남촌극장의 간격

1910년 2월 18일 활동사진을 상시 상연하는 <경성고등연예관>이 개관했다.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촌 황금정에 개관한 <경성고등연예관>은 특등부터 4등석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연중무휴로 매일 밤 활동사진을 상영하였다. 조선인 거주지역인 북촌에 있었던 <단성사(團成社)>와 <장안사(長安社)>와 <연흥사(演興社)> 등에서도 활동사진을 상영하기 시작하였다. 활동사진을 상시적으로 상연하는 극장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활동사진은 한국일상문화에 침투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극장이라는 공간은 구경거리를 단순히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 공간이었다. 극장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 이야기를 하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중첩된 공간이다. 극장 속에서 사람들은 극장이란 제도가 요구하는 규율을 학습하게 된다.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들어선 관객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돈을 내고 정해진 장소에 앉아 정해진 시간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보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극장을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영화보기에 앞서 시간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추어 일상생활을 재배치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을 내면화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율을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극장은 학교나 병영, 공장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공적시설들보다 훨씬 소프트한 학습장이었다.²⁾ 영화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 극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극장이 요구하는 규율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경성의 대표적인 상설 극장은 아래 표와 같다.

2) 전우용, 『서울은 깊다』(돌베개, 2008) pp.348~349

북촌		남촌	
극장명	설립년도	극장명	설립년도
단성사(團成社)	1907년(1918년 영화 전문극장으로 개편)	경성고등연예관(京城高等演藝館)	1910년(1914년 폐관)
원각사(圓覺社)-유광관	1908년(협률사에서 개칭)	대정관(大正館)	1912년
광무대(光武臺)	1907년(동대문활동사진소에서 개편) 박승필 1908년 인수	황금유원-황금관(黃金館)	1913(1938년 황금좌로 개칭)
장안사(長安社)-지만관	1908년	희락관(喜樂館)	1913년
연흥사(演興社)	1908년	경성극장(京城劇場)	1919년
우미관(優美館)	1912년	중앙관(中央館)	1920년
조선극장(朝鮮劇場)	1922년	낭화관(浪花館)	1920년
미나도좌(みなど座))	1930년	경룡관(京龍館)	1921년
제일극장(第一劇場)	1933년(미나도좌에서 개칭)	*제2대정관(大正館) 조선번사 채용	1914년. 구리개 고등연예관에서 개칭

남촌의 극장들은 일본영화를 주로 상연하였고, 북촌의 극장들은 유니버설, 폭스, 파라마운트 등 할리우드 영화들이 주로 상연되었다. 당시 애활가(愛活家)들의 인기 영화는 유니버설사의 연속활극 「名金 The Broken Coin」(1915), 「鐵의 輪 The ron Claw」(1916)와 블루버드영화인 「毒流 The Shoes」와 채플린이 주연한 키스톤사의 코미디, 파라마운트사의 세실 B 데밀이나 그리피스의 장편영화 등이었다.

<경성고등연예관>과 <우미관>의 성격은 남촌과 북촌의 문화가 다르듯 사뭇 거리가 있었다. 이들 극장들은 각기 자국의 변사들로 영화를 해설하였기 때문에 점차 일본인과 한국인의 전용극장화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극장은 민족적·언어적·문화적으로 균질하고 단일한 공간이라고 상상되었다. 한국인 극장에서 관객들의 만세고창과 격문 유포가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19년 3월 21일 <우미관>과 <단성사>에서 관객들의 만세 제창과 1929년 12월 13일 <조선극장>에서 ‘카츄사’가 상영되던 중 막간에 신간회 간부였던 김무삼(金武森)이 무대로 올라와 광주학생 사건에 대한 문서를 낭독하다 임석경관에게 피체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다.³⁾ 당시 북촌의 극장들은 내지(内地)와 반도(半島)라는 차별적인 담론으로 재배치되었기 때문에 일제에 대한 한국인 관객들의 저항심이 저절로 스며들었던 것이

3) 김려실, 앞의 책., pp.52~53

다. 이 시기 영화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새롭게 호명하는 기제로서 작동하였다.

4. 변사(辯士)와 애활가(愛活家)의 애증

무성영화에서 변사의 설명은 요즘의 더빙과 내레이션(narration)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변사는 영화라는 매체/형식에 대한 해설 뿐 아니라 영화의 텍스트/내용까지 해설을 하여 상영되는 영화와 관객들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즉 서양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영화들은 서구 문물에 낯선 아시아의 관객들에게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설이 필요했다.⁴⁾ 즉 변사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서 설명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변사들이 일정부분 서양의 영화문화를 번역해 주는 문화번역자의 역할을 하였음도 인정해야 한다.⁵⁾

그리고 변사들의 설명에는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다. 관객들의 감정에 호소해야 했기 때문에 설명 이상의 목소리 연기도 필요했었다. 또한 당시 극장에서는 영화와 영화 사이에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이 막간에는 음악대가 연주를 하거나 가수가 등장해 노래를 부르거나 변사들이 만담을 하거나 우스꽝스런 행동을 하여 관객들을 즐겁게 하였다. 때문에 변사의 설명을 연행(演行)으로 볼 수도 있다.⁶⁾ 이러한 연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변사의 소리연행은 전설-중설-후설로 진행된다. 전설은 상영될 영화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스토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함으로써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중설은 영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인물들의 대사, 효과음, 관객들의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감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해설 단계이다. 그리고 후설은 변사의 인사와 후속작에 대한 예고, 연속극일 경우에는 내용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하여 개괄을 함으로써 관객들의 다음 관람을 유도하는 단계라고 할 수

4) 옥미나, 「변사의 매개적 위상 및 의미에 관한 연구-한국 영화사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2004), p.10

5) 키타다 아키히로, 「유혹하는 소리/영화(관)의 유혹-전전기 일본 영화에서 소리의 편성」, 『확장하는 모더니티』(소명출판, 2007), p.123

6) 옥미나, 앞의 논문., p.8

있다.⁷⁾ 변사들은 영화와 영화 사이의 ‘십분휴식’과 같은 막간에도 관객을 위해서 연행을 해야 했다. 특히 <우미관>의 서상호는 ‘뽕뽕이 춤’이 유명했다.

하지만 당시 영화 매니아들이었던 애호가들에게 변사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변사」-변사제군에 하나 제안한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하얏다」 「하얏섯다」가 글 쓰는 데는 모르겠지만 말로 하는 때에 듣는 사람으로서는 엇덜지? 처음 극장가는 노인은 대분개할 것이다. 그 조(調)를 꺾치고 「하얏습니다」 「하얏섯습니다」하면 어른의게나 어린이 의게나 꺾 다정하게 들릴 것이다. 더구나 인정극에 리오, 그리고 변사제에 한 가지 유행이 있스니 「마음자리」라는 말이다. 「마음자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마음의 돛자리라는 말인지, 마음이 깔고 자는 자리인지 엇덜던 해석할 수 업는 말이다. 그리고 한참 긴장한 장면에서 가서 농담(醜談)을 탁 텃드리는 변사가 있다. 그 변사는 원래, 희극에는 더-우는 조로하는 이인데 청승마진 것은 조호나 너무 그 음성이 청승마져서 너무 천하게 들린다. 그리고 한가지 우수한 일이 있스니, 엇덜 변사는 한참 자기도취로 「자연의 의지와 우주의 이성」이 아-숴하다! 하니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한 고상한 문자를 안써도 능히 할 수 있는데 얼토당토안은 문자를 쓰는 것이 도리어 자기 폭로에 지낸지 안을 줄 안다. 그리고 장면이 벌써 지났는데 지난 장면을 가지고 떠돌고 섰스니, 그것도 자기 취미지만 관자(觀者)는 그러한 변사를 원치 안을 것이다. 특히 이 점에 생각 좀 하여 주었스면 고맙겠다. (「극장만담(劇場漫談)」, 『별건곤』 제5호, 1927. 3, p.95)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사와 대(對) 관객(특히 남녀 학생과 소년)과의 관계를 말하려 한다. 변사들이 영화대본(說明書)을 보지 안는지, 영화의 내용과는 아조 다른 추담(醜談)을 베푸는 변사가 만흔대 항용 청소년 혹은 남녀학생들의 염서(艷書)나, 담화에까지 그 추담병이 전염된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서 희극변사 최병용(崔炳龍)군(단성사)의 추담(醜談) 업시도 점자게 웃키는 그 비결을 좀 배웠스면 엇덜지? 그리고 변사의 말이 낫스니 말이지 그 영화에 역할된 인물의 성명(영어나 기타 외국어)을 엇덜 나라말이든지 발음의 만능인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그대로 못하느냐, 모르면 누구의게던지 무러볼 수 업슬가, 레하면 「썩크」를 「썩구」라니 외국인의 우습거리를 장만할 필요는 무엇 잇는가. 일본 것이 아모리 좇태도 남분 것은 배호지 안는 것이 조홀 듯 하다. (「극장만담(劇場漫談)」, 『별건곤』 제6호, 1927. 4, p.109)

변사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의 필자는 변사들의 ‘하얏다’, ‘하얏섯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이나 ‘마음자리’, ‘자연의 의지와 우주의 이성’과 같은 생경한 표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영어인 ‘썩크’를 일본어 발음인 ‘썩구’로 발음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변사들의 외국어 발음실력까지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긴장된 영화내용과 반대되는 농담을 하거나 청승맞은 음성 또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변사들의 추담(醜談)을 가지고 웃기려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추담 없이 관객들을 웃기던 <단성사>의 변사 최병용의 비결을 배우라고 조언을 한다.

7) 옥미나, 앞의 논문., pp.26~30

그런데 당대 애호가들이 변사와 극장에게 쏟아놓았던 비판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애증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당시 가장 대중적인 오락이었다.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세계는 식민지 한국인들에게는 선망의 세계이자 모방의 대상이었다. 영화는 당대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다. 영화를 통한 여가문화의 활성화, 애호가의 등장으로 인한 영화문화의 성숙, 새로운 패션과 재즈 등 서양음악의 유행 등 서구적 근대 문화가 생활 속에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⁸⁾

5.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의 전개⁹⁾

개화기 활동사진이 유입되자 한국인들은 활동사진을 통해서 서양과 근대를 배웠다. 진기한 박래품이었던 활동사진이 정말 신기한 세상을 한국인들 앞에 펼쳐주었다. 활동사진은 신기한 오락물 이상의 의미로 한국인들에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성림(星林)이라고 불리웠던 할리우드 영화들은 정말 별들을 생산하는 샘물 같았다. 그런데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한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영화를 철저히 통제하였다. 일제는 영화가 대중조작을 위한 가장 강력한 매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제 강점기 내내 한국에서 제작되고 상영되었던 영화들은 모두 일제의 무자비한 검열에 의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영화 도입기인 1910년대가 한국관객들에게는 행복한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촌의 <경성고등연예관>이 생기고 북촌에 <우미관>이 생기면서 영화보기는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오락이 되었다. 영화관객의 증가와 영화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한국의 영화인들도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김도산이 연쇄극(連鎖劇)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를 통하여 영화 제작 실험을 하고, 1923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의 저축 장려용 영화였던 「월하(月下)의 맹서(盟誓)」(윤백남)를 거쳐 하야카와 고슈의 「춘향전」(1923)이 제작됨으로써 한국 안에서도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박승필은 <단성사> 내에 촬영부를 신설하고

8) 장두식, 「일상 속의 영화-2,30년대 영화와 일상생활의 관련 양상 연구」(『동양학』44집, 2008.8), p.87

9) 일제강점기 한국영화라는 개념은 정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자본금과 제작에서 한국인만이 참여한 영화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희문은 일제강점기 한국영화를 자본의 조달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한국인 관객을 주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면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한국영화’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영화를 의미한다. 조희문, 『한국영화의 쟁점 1』(집문당, 2002), p.19

1924년 「장화홍련전」(박정현)을 제작하였다. 이 영화에 대해서 1924년 8월 19일자 『매일신보』에 “고심 끝에 순수한 조선영화극이 나타나게 되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상영 중 모두 입을 모아 감탄했다. 약간의 혐질이 없는 바 아니오 비록 영화 스케일이 웅대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진 전편을 통하여 조금도 무리가 없더라”라고 호평을 하고 있다. 1924년 부산에서 설립된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는 왕필렬의 「해(海)의 비곡(悲曲)」, 윤백남의 「운영전」(1925) 등을 제작하였다. 윤백남은 서울에서 윤백남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이경손의 「심청전」(1925)을 제작하였다. 조일제의 계림영화협회는 「장한몽」(1926), 「산채왕」(1926), 「먼동이 틀 때」(1927)를 제작하였고, 이필우의 반도키네마는 「멍텅구리」(1926)를 제작하였고, 정기탁프로덕션은 「봉황의 면류관」(1926)을 제작하였다.

서울에 설립된 조선키네마 프로덕션(요도 토라조)은 나운규의 「아리랑」(1926)을 제작하여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다.

이 한 편에는 자랑할 만한 우리의 조선정서를 가득 담어 놓는 동시에 “동무들아 결코 결코 실망하지 말자”하는 것을 암시로라도 표현하려 애썼고 또 한가지는 “우리의 고유한 기상은 남성적이었다. 민족성이라 할가 할 그 집단의 정신은 의협하였고 용맹하였든 것이니 나는 그 패기를 영화 위에 살니려 하였든 것이외다.”(나운규, 「아리랑과 사회와 나」, 『삼천리』, 1930.7, p. 53)

나운규의 이와 같은 토로처럼 「아리랑」은 한국적 정서와 색채가 살아나는 영화였다. 당시 한국영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수작이었다. 그 후 나운규는 「잘 있거라」(1927), 「옥녀」, 「사랑을 찾아서」(1928), 「사나이」, 「병어리 삼룡이」(1929), 「아리랑 후편」(1930), 「오몽녀」(1937) 제작에 참여한다. 나운규 이후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한 감독이라는 평을 듣는 이규환은 「임자 없는 나룻배」(1932)와 「나그네」(1937)를 연출하여 한국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

1935년에 이필우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토-키인 「춘향전」(이명우)가 제작됨으로써 무성영화 시대에서 발성영화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일제는 1935년 영화수입통제와 1937년 외국영화상영 쿼터제를 실시하여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유통을 간접적으로 봉쇄하였다. 일제의 영화계 통제와 탄압은 점점 심해졌다. 성봉영화사는 일본 동보영화사와 제휴하여 「군용열차」(서광제)를 제작하였고 고려영화사는 일본 송죽영화사와 제휴하여 「수업료」(1940)를 제작하였다. 두 영화는 친일색이 강한 영화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군국주의 영화의 결정판이라는 「지원병」이 동아영화사에서 제작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영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한국의 영화인들도 많았다. 그들은 일제의 강화된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순수 문예작품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다. 방한준의 「한강」(1938), 윤봉춘의 「도생록」(1938), 안철영의 「어화」(1939), 박기채의 「무정」(1939) 등이 제작되어 암흑기 영화사의 맥을 이었다. 일제의 영화통제는 점점 극으로 치달았고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조선영화령’이 1940년에 공포되었고, 1942년 관제어용법인인 조선 영화주식회사의 발족으로 한국 영화제작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헐리우드를 꿈의 공장이라고 일컫듯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다. 영화제작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영화연출자를 감독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영화 시스템은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한국영화를 정상적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중국 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와 압박을 가했다. 이 시기가 되면 한국영화에서 나운규의 「아리랑」이나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와 같이 암시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민족정서를 표현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일제의 패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1930년대 후반기는 영화관객들에게도 암흑기였다. 1935년 영화수입통제와 1937년 외국 영화상영 쿼터제는 북촌 극장에서도 일본영화 아니면 친일영화만을 올리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이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던 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스크린이 점점 악몽의 세계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가요, 근대를 노래하라

장 유 정
단국대학교

대중가요, 근대를 노래하라

◆ 목 차 ◆

1. 대중가요의 형성
2. 근대매체와 대중가요
3. 대중가수의 출현과 인기
4. 대중가요의 갈래
5. 군국가요의 등장
6. 근대 대중가요의 위상과 의의

1. 대중가요의 형성

- * 대중의 정의 : 지위, 계급, 학력, 재산 등의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 * 광의의 대중가요
 - 대중이 향유하고 즐기는 가요
 - 대중이 대중매체를 통해 향유하는 음악
- * 협의의 대중가요 : 애초부터 작사자와 작곡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음반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창작한 작품이자 상품

2. 근대매체와 대중가요

- * 음반 이전의 음악 양상
 - 전통가요의 통속화 : 잡가의 유행과 전문 소리꾼의 등장(<수심가>, <난봉가>, <방아타령> 등의 유행)
 - 일본 변안곡의 유입 : <탕자자탄가>(1920년), <자라메라>(1922년) 등이 유행
 - 서양 음악의 수용 : 군악대와 찬송가

1) 음반과 대중가요

- * 유성기의 도래 : 19세기 말(“매천야록”)
 - 첫 상업 음반 : 1907년 미국 콜럼비아사에서 제작
 - 1911년 이후부터 일본 음반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
 - 1930년대 대표적인 음반회사 : 콜럼비아, 빅타, 포리돌, 태평, 시에론, 오케 외 군소 음반회사의 난립

☞ 「유성기 시청회와 유성기 광고」, 『매일신보』 1912년 2월 16일

- * 유성기는 ‘가정의 오락기’ 내지는 ‘가정 단란의 매개체’로 소개됨
- * 유성기는 고가의 상품(25원)이었으나 대중은 자연스럽게 그 소리에 노출됨(다방, 카페, 악기점)
- * 유성기는 1930년대 대중가요의 출현과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함
- * 음반회사의 구성과 역할
 - 문예부장을 중심으로 전속 작사자, 작곡자, 가수로 운영
 - 문예부는 음반 제작 기획을 위시, 매월 신보를 배정하고 음반을 판매부에 넘기기까지의 모든 일을 담당
 - 실력 있는 가수를 영입하기 위한 음반회사 간의 경쟁도 치열

2) 라디오 방송과 대중가요

1924년부터 시험 방송을 거쳐 1927년 2월 16일에 호출부호 JODK로 방송 시작

- * 처음에 일본어 방송만 하다가, 운영난 타개를 위해 1933년부터 한국어 방송 시작
- * 경성방송국의 내용(1927년~1945년)
 - : 보도, 교양, 오락
- * 오락에 전통음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포함
- * 1930년에 접어들면서 대중음악 방송이 수적으로 증가
- *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하거나 음반을 틀어주기도 함

- * 음반 이전에 신곡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기도 함
: 라디오는 음반보다 관제적인 성격이 강하였음

3. 대중가수의 출현과 인기

☞ 「레코드 가수 인기투표」, 『삼천리』 1934년 11월호.

	1935년 1월	1935년 2월	1935년 3월	1935년 6월	1935년 10월
1위	왕수복 353표	왕수복 577표	왕수복 956표	왕수복 1,435표	왕수복 1,903표
2위	이난영 313표	이난영 394표	선우일선 567표	선우일선 865표	선우일선 1,166표
3위	선우일선 309표	선우일선 331표	이난영 502표	이난영 801표	이난영 873표
4위	강석연 307표	강석연 312표	김복희 330표	김복희 337표	전옥 387표
5위	정훈모 306표	김복희 309표	강석연 323표	강석연 336표	김복희 348표

<여자 가수 인기 투표>(1935년)

	1935년 1월	1935년 2월	1935년 3월	1935년 6월	1935년 10월
1위	채규엽 337표	채규엽 521표	채규엽 901표	채규엽 1,379표	채규엽 1,844표
2위	김용환 335표	김용환 427표	김용환 696표	김용환 962표	김용환 1,335표
3위	강홍식 316표	강홍식 349표	고복수 383표	고복수 645표	고복수 674표
4위	현제명 307표	고복수 322표	강홍식 375표	강홍식 418표	강홍식 468표
5위	안보승 305표	안보승 312표	안보승 324표	최남용 325표	최남용 333표

<남자 가수 인기 투표>(1935년)

- * 음반회사의 마케팅 전략 - ‘얼굴 없는 가수’ 내지는 ‘복면 가수’

4. 대중가요 갈래

1) 재즈송의 형성과 전개

- * 코리안재즈밴드(경성방송국, 1926년경)
- * 재즈송의 정의 :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대중가요 갈래로 본격적인 의미의 재즈만이 아니라 팝송, 샹송, 그리고 라틴 음악까지 포함하는 갈래

- 🎵 <종로행진곡>(시오지리 세이하치(鹽尻精八) 작곡, 복혜숙 노래, 1930년)
- 🎵 <다방의 푸른 꿈>(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이난영 노래, 1939년)
- 🎵 <이태리의 정원>(이하운 작사, 에르윈 작곡, 최승희 노래, 1936년)

2) 만요(漫謠)의 형성과 전개

- 🎵 <오빠는 풍각쟁이>(박영호 작사, 김송규 작곡, 박향림 노래, 1938년)
- * 만요의 정의 : 만요는 우스운 가사로 이루어진 일종의 코믹송(comic song)
- * 음악적으로는 서양대중음악, 일본음악, 전통음악의 영향을 혼성적으로 수용

3) 신민요의 형성과 전개

- 🎵 <노들강변>(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박부용 노래, 1934년)
- * 신민요의 정의 : 민요와 잡가, 판소리와 같은 전통가요의 대중가요화
- * 기존 민요의 후렴이나 정서를 차용
- * 1930년대 중반에 기생 가수가 신민요 가수로 활약(왕수복, 선우일선, 김복희, 이화자 등)

4) 트로트의 형성과 전개

- 🎵 <황성의 적> (왕평 작사, 전수린 작곡, 이애리수 노래, 1932년)

트로트의 정의 :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대중가요로 5음계 단조가 주를 이루었음(신민요와 달리 후렴구가 아닌 내용구로 이루어짐)

* 당대의 삶을 팝진하게 드러내서 대중의 호응을 얻음

🎵 <목포의 눈물>(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이난영 노래, 1935년)

5. 군국가요의 등장

- * 군국가요의 정의 : 일제의 침략 전쟁을 홍보하고 전시 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노래 중 상업적인 유행가의 생산, 유통 과정을 거쳐 유포된 것
- * 애국가, 시국가, 개병가, 국민가 등으로 곡종명을 사용
- * 군국가요의 등장 원인 : 전시 총동원 체제의 강화와 관련
- * 군국가요 등장 시점 :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말인 1937년 11월부터 1938년 1월까지 <남아의 의기>를 필두로 일련의 군국가요 발매
그러나 판매 부진으로 거의 발매하지 않다가 태평양전쟁 이후인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
- 1942년 이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일제의 전면적인 통제 아래에 놓임

6. 근대 대중가요의 위상과 의의

- 현대 대중음악의 모태
- 새로운 문화가 외래문화가 자국의 문화와 만나서 생성되듯이, 이 시기 대중음악도 서양대중음악, 일본대중음악, 전통음악이 교섭하고 공존하면서 형성
- 전 세계적인 음악 문화와 음반 산업의 맥락 속에서 근대 대중가요를 이해하기

소문에서 신문으로

조 맹 기
서강대학교

소문에서 신문으로

◆ 목 차 ◆

1. 개화사상과 근대 신문
2. 조보의 발행
3. 조선시대 대간(臺諫) 언론
4. 실학과 독립신문
5. 공론장의 확장, 소문에서 신문으로

1. 개화사상과 근대 신문

오늘날 인터넷과 트위터로 전 국민이 ‘공론장(public sphere)’ 구성에 참여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언론으로 시작하여 언론으로 끝이 난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다.

공론장에 떠도는 정보는 정확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객관성을 지녔다. 전 국민이 공론장에 접하게 됨으로써, 그 정보는 곧 객관성을 확보한다. 그 만큼 많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공론장에 참여하면, 여론은 몇 시간 만에 형성이 된다. 여론이 그만큼 객관성을 지니고, ‘소문’¹⁾, 풍문(風聞)은 곧 정제된 정보가 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자적인 언론기구가 준비하다. 그 역사는 《독립신문》이 시작한 1896년 4월 7일부터 11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른다. 이 신문 이후도 우리의 언론 역사였고, 그 이후도 언론의 역사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의 연구는 대간연구에서 정두희(1994), 조선 초기 공론사상으로 김영주(1985), 조보에서 박정규(1982), 독립신문의 독자 연구에서 채백(2006) 등이 파편적으로 행해졌다. 이들은 각 요소들을 외적 변수로 고려할 때, 서로 단절된 역사이고, 각 연구자는 뭘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적 변수로 볼 때 전통의 각 언론기구는 사회제도 내에

1) 소문은 ‘전하여 들리는 말’로 정보가 입으로 전해진다. 역사학자 브라이언 스톡(Brian Stock)은 구어문화(oral culture)는 작고 고립된 지역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Brian Stock, 1983, p16, Mitchell Stephens, 2007/2010, p.44).

서 중요한 변수로서 작동해왔다. 본 연구는 중요한 언론현상을 내적·외적 변수를 함께 보면서 긴 역사를 ‘소문에서 신문으로’로, ‘합리화(rationalization)’의 과정에 따라 엮어 보는데 의미를 지닌다.

본 과제는 ‘공론장’의 형성과정을 조선 개국부터 《독립신문》이 생긴 긴 역사적 과정을 언급했다. ‘소문(所聞)에서 신문(新聞)으로’가 본 연구의 과제이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공론장은 공권력의 ‘공공영역’(die Oeffentlichkeit Sphaere, Bereich)에서 한발 떨어져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의미를 지닌다(Habermas, 1962/ 한승완 옮김, 2004, p.14). 또한 박승관(2000, p.162)이 말한 대로 개인성이 시민과 만나는 곳이 공론장이었다. 즉, 공론장은 개인의 ‘생활세계’를 집단의 공적 영역으로 이전시킨다.

《독립신문》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개인 자유를 표출할 수 있는 곳이다. 동 신문 1896년 4월 7일 호에 “무론 누구든지 물어볼 말이 있든지 세상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신문사로 간단하게 구절을 떼어서 편지하면 대답할 만한 말이든지, 신문에 낼만한 말이면 대답할 터이요. 내기도 할터이요. 한문으로 한 편지는 당초에 상관 아니 함.”이라는 말이 있다.

또한 《독립신문》은 “우리가 편벽되지 아이한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 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이 인민에게 말 할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함인 게 아니라 조선 전국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랴함.”이라고 했다.

더욱이 《독립신문》은 한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동 신문은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떼여 쓴즉 아모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게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움”이라고 했다.

《독립신문》은 대량복제가 가능한 인쇄신문으로, 정치권력과는 따로 떨어진 독립기구로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독자는 같은 신문을 읽으면서, 공론장의 영역을 실감한다. 그러나 이 신문이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소문’을 불식시키는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인쇄신문의 역사, 개화사상이 맞물리는 대목이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는 한자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은 붓으로 한자 한자를 필사했지만, 독립신문 이후 사대부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계급은 한글로 인쇄된 글을 읽고 쓰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의 혼란상은 뉴스를 갈구하는 사람이 늘어

났고, 그 뉴스 욕구는 특정계급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화사상은 《독립신문》으로 그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언론인 장지연(張志淵, 1864~1920)은 ‘경세(經世)’가 정권에 참여하여 정책을 구현하거나, 재야자가 상소(上疏)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했다. 더욱이 서양 신문의 유입으로 재야자가 쉽게 경제 정책론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즉, 장지연은 “패창수록(霸窓手錄)”에서 사학, ‘경세학’, 그리고 저널리즘의 관계 및 그 책무를 연계시켰다(장지연, 1956, pp. 285~286).

물론 경세학(법학, 경제, 군사 등의 정책론 및 그 사상, 역사, 지리)는 근대 지향적 관점, 그리고 민족적 관점에서나 가장 실학적 요소를 담았다. 그 결과 조선 후기 실학은 현실문제에 직결된 경세학에 의미를 부여했다(천관우, 1975, p.181).

이점에서 장지연과 천관우는 실학을 경세학의 맥락에서 접근한다. 장지연은 경세학을 주장하면서, 신문의 역할을 자세히 논한다. 그는 1899년 1월 22일 《시사총보(時事叢報)》의 ‘본보발간지취지’에서 “옛날 패관(稗官)과 야사(野史)가 있어 역사를 지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변하여 신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구자혁, 1993, p.74에 재인용)”라고 했다.

여기서 패관은 “옛날에, 임금이 민간의 풍속이나 정사를 살피기 위해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 기록시키던 벼슬아치”라고 했다(이희승, 2001, p.243). 패관 기자는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였다.

신문은 공론장으로 발행부수를 많이 함으로써 더욱 정확성, 객관성, 균형성 같은 실증주의적 논리를 펴갔다. 떠도는 소문은 객관성을 확보할 때 의미를 지녔다. 물론 ‘인쇄신문’²⁾ 《한성순보(漢城旬報)》, 1883.10.31~1884.10.17, 《한성주보(漢城周報)》, 1886.1.25~1888.6.6》는 개화파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실학과 박지원(朴趾源)의 손자 박규수(朴珪壽)의 사랑방에 오경석, 유대치, 김홍집,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 사상가들이 모였다. 그들은 서구의 과학기술, 상업과 민권 사상 등에 관심을 가졌다. 신유학의 ‘결인심(結人心)’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민(閔)씨 일파의 유학자는 서구인의 기술을 ‘기묘하고 음탕한(奇技淫巧)’이라고 비판하지만, 개화파는 오히려 서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2)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조보와 인쇄로 필사와는 다른 형태를 지녔고, ‘국내 관보’와 ‘국내 사보’, ‘각국 근사’, ‘논설’, 피쳐기사 집록(集錄) 등을 게재했다. 비록 관리가 운영하는 형태였으나, 조보와는 달리, 일정한 부분 독자성을 가진 언론기관이었다.

로 수용할 것을 권장했다. 개화사상은 조선시대의 심학(心學)과는 거리가 있었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심학, 인륜 대신, 경세학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개화파 중 한성관운을 맡은 박영효(朴泳孝)가 신문사업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한성순보》 발간에 참여했다. 그는 광주유수로 좌천되기까지, 인쇄신문 창간에 참여했다. 이 신문은 역관들이 주동이 되어, 개화사상을 전했다. 《한성순보》는 공론장의 역할은 했지만, 여전히 독립된 민간 기구는 아닌, 관이 주도하는 신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신문을 창간했으나, 우정충국 사건, 즉 갑신정변이 1884년 10월 1일(음력) 일어났다. 이는 과거의 역마법을 개선하여, 체신제도인 우편제도를 실시하고자 계획한 것이다. 그 때 개화파 3일 천하가 일어났다. 그 후 《한성주보》가 같은 형태로 나타났지만 실패하고, 《독립신문》이 창간할 때까지 신문 없는 긴 기간이 흘렀다.

본 연구는 《독립신문》이 소문을 불식시키는 과정을 합리화의 과정으로 간주했다. 이 과정을 ①조보의 발행, ②조선시대 대간 언론, ③실학과 독립신문, ④공론장의 확장, 소문에서 신문으로의 순서로 서술한다.

2. 조보의 발행

물론 인쇄신문은 아니었지만, 조선조정은 필사신문(筆寫新聞)의 《조보(朝報)》를 발행했다. 조선조정 승정원(承政院)에서 ‘조정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신문 이어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지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朝報》³⁾, 《저보(邸報)》⁴⁾ 또는 《기별(奇別)》이라는 신문의 한 형태가 존재하였다. 물론 《조보》가 인쇄신문으로 발행한 때가 있었다. 선조

3) 《조보(朝報)》를 제작발표하는 곳은 조보소(朝報所) 또는 기별청(奇別廳)이라 하였고, 조보의 기사를 필사하여 발행하는 사람을 기별서리(奇別書吏)라고 하였다. 발행된 자료를 배포 담당하는 관리를 기별군사(寄別軍士)라고 호칭하였다(최정태, 1992, p.14) 여기서 쓰여지는 문자는 주로 한자를 쓰되 이두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서체가 매우 독특하여 이른바 기별글씨라 불리는 흘림체를 사용하였다.

4) 《저보(邸報)》는 중국 한나라 초, 혹은 당나라(618)에서 발행한 관보로, ‘저’는 공식 보도의 목적으로 지방의 제후가 머무는 숙소를 의미한다. 이 관보는 “일반 백성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제후 사이의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한다(Mitchell Stephens, 2007/ 2010, p.85). 그 내용은 공식 칙령, 승진, 해직, 장관이나 다른 관료들의 전언, 궁중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주로 실었다.

11년(1578년)에 민간인들의 손으로 인쇄조보가 발행되었다가 선조가 진노하여 중단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조보가 분명한 관보이었으며 이에서 파생된 《저보(邸報)》가 있으니, 조선상대에는 각도부군 등 지방행정청에서는 중앙지에 반드시 경주인(京主人)이 있어 관계의 소식을 각각 그 자기의 지방에 적어 보내는 것이니 이는 《기별》로서 명칭하여 《저보》란 한자이다(안재홍, 1935; 박정규, 1982, p.17).

《조보》는 일련번호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발행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세종 27년(1445) 적어도 15세기 중에 이전에 기별이란 고유어가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박정규, 1982, p.40). 상기 인용문에서 나타난 기별은 조보의 동의어로서의 기별은 아니며 궁금한 소식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별(奇別)》이라는 단어가 처음 보이는 것은 중종 15년 기묘 사화(己卯土禍) 때의 기록이다(박정규, 1982, p.40). 이때는 승정원에서 조보가 발행된 것이 확실한 시기로서, 중종실록에 나타난 《기별》은 바로 조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박정규, 1982, p.40).

그렇다면 《조보》가 승정원에서 주서(注書, 2명), 사변가주서(事變假主書, 1명)에 의해 발행되어 배포된 분명한 시기는 중종조로서 이때는 조보제도가 확립되어 필사신문 형태의 조보가 널리 통용되었다고 본다. 조보를 통해 사대부는 ‘사회의 조정(coordination)’을 시도했고, 구성원의 ‘사회화 기능’을 담당했을 것 같다.

중종 조에 조보의 체제나 형식의 골격이 이루어져 조선왕조 후기까지 계속적으로 발전, 변모하였다고 하겠다. 이때 승정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행되어 배포된 필사신문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하겠는데 이런 《조보》는 1895년까지 발행을 계속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매체로서 《조보(朝報)》는 “승정원을 거친 사건과 문서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게 하였다(박정규, 1982, p.50).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국왕의 조칙(詔勅), 비답 및 윤음, 결의사항, 서임사령, 지방관의 장계(狀啓) 등이었다(최정태, 1992, p.24). 물론 《조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각종 필사 신문매체가 공존했다.

조선왕조에는 전근대적인 신문형태로 볼 수 있는 ‘분발(分撥)’, ‘정사(政事)’, ‘소차(疏劄)’, ‘영기(營奇)’ 등의 특수 기능이나 성격을 가진 필사신문들이, 다양한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달하였다(박정규, 1982, p.8). 이들 다양한 전근대적 신문은 거의 500여 년간 양반관료들에게 조정소식을 비롯하여 최신의 뉴스를 끊임없이 전달하

면서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면에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필사체 조보이다. 박제가(朴齊家)는 청국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붙여 쓴 기행문인 『북학의(北學議)』(정조2년(1778))의 당보(塘報)라는 항목에서 인쇄의 조보를 발행할 것을 기대했다(박정규, 1982, p.8).

또한 프랑스인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이 1890년 5월에 주 프랑스 공사관의 서기관 겸 통역관으로서, 저술한 『조선서지(朝鮮書誌)』는 조선에서 1년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작성한 내용 중 조보에 관한 것이 있는데, 당시 조보의 별칭, 지면의 크기, 글씨체 등과 기사의 수집 및 제작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조보가 당시 서양의 신문과 그 체제나 내용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을 밝혔다(박정규, 1982, p.12). 물론 근대 신문의 중요한 요건으로는 우선 정기적인 발행과 인쇄에 의한 복제가 되어야 한다. 일단 서한 내지 필사신문은 전근대적인 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어 구두신문인 현상이나 방(榜), 벽서(壁書), 괘서(掛書) 등의 게시신문적인 매체는 근대신문의 선행적인 형태로 볼 수 없었다.

물론 《조보》에서 파생된 신문적 현상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분발(分撥)》이 있다. 조보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1회 발행하는 정기적인 신문이었다. 따라서 긴급한 뉴스가 조보 발행 직후에 승정원에 도달한다면 거의 하루 동안을 기다려야 전달되게 되므로 조보 발행 이전에 수시로 긴급 뉴스를 제작하여 미리 관계 독자에게 전달되는 신문형식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불발이었다(박정규, 1982, p.47).

이는 오늘날의 호외에 해당한다. 《분발》은 조보의 제작자인 기별서리(奇別書吏)가 승정원에 도달한 조보의 기사 가운데 담당 독자에게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조보발행 이전에 신속하게 제작, 배포되는 신문형태로 독자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발행하였다.

물론 《조보》는 최고권력자인 국왕과 신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모두 승정원을 거쳤다. 승정원의 주요 임무는 왕명하달 및 상의하달을 위한 중간역할인 왕명출납을 맡았다.

양반 관료들은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집중시켜 통치 상 필요한 제 정보가 모두 국왕에게 보고되도록 하였고 국가의 모든 최종 명령은 국왕의 입을 통하여 발해 지도록 되었다. 자연현상이나 기이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왕에게 보고되었으며 국가의 중대사는 물론 과거의 협력자까지도 국왕의 명령으로 발표되었다.

《조보》의 기사 내용은 국왕의 거동, 국왕의 건강상태, 그리고 주관하는 제향(祭

享) 등에서부터 그에게 올린 제 보고와 그가 내리는 모든 명령이 실리기 마련이다. 조보의 중요한 기사 중 하나는 국왕의 명령 즉 전교(傳敎)이었다. 프랑스인 모리스 꾸랑은 “조보가 당시 서양의 신문과 그 체제나 내용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였다.”라고 한 말은 그 내용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보》는 저리(邸吏)를 통하여 지방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독자는 적어도 각도의 관찰사를 포함하여 지방수령인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등의 지방 관리였다는 점은 물론이다. 따라서 조보의 독자계층은 사대부 즉 양반 관료 및 일부 유림들로서 그 핵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박정규, 1982, p. 122).

《조보》는 단골 메뉴로 인사소식이 실린다. 그 만큼 인사소식이 조선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틀림없었다. 스티븐스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관점에서 느끼는 인식과 감정의 연속적 흐름에 의존하며, 구성원들에게 날마다 또는 시간마다 집단의 존재와 중요성을 확신시킨다. 개인이 사회의 생각을 사고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는 바로 이러한 공통된 사고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한다.”라고 했다(Mitchell Stephens, 2007/ 2010, pp.71~72). 이 말은 인사소식의 집단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소문’과 ‘신문’의 요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사소식만을 다루는 《정사(政事)》가 존재했다. 《정사》는 관원의 임명, 출척(出陟)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이나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신문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독자층인 양반관료들은 주요 관심사였던 조정의 인사소식만을 다루었다(박정규, 1982, p.135). 《정사》 단골서리들에 의해서 대량으로 필사, 복제되어 양반 독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정사는 인사소식이라는 특수한 기사만을 게재하였으므로 비교적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기사 내용을 다루는 조보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정사》는 신문의 공시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형태는 소문의 형식을 가진 것이 존재하였는데, 《시속소문》이라는 것이다. 《시속소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 《시속소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 일부가, 1885년에 그 내용은 조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한문으로 시정소식 등을 기록해 보낸 녹지(錄紙)와 비슷한 점이 많다. 소장자는 시속소문을 전라도 지방에서 서한, 조보와 함께 있는 것을 수집하였다고 한다(박정규, 1982, p.163).

물론 소문은 출처, 즉 ‘언근(言根)’이 불분명한 것이다. 《시속소문》은 조선사회에서 뉴스의 욕구가 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당시 《시속소문》은 풍전 등화의 사회 개개인에게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었다. 미첼 스티븐스(Mitchell Stephens)는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실현하는 데는 ‘집단 정체성’이 중요하다. 집단 정체성은 지리, 민족, 또는 공통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역사·예술·종교에 의해 보존된다. 개인의 자아의식은 하루를 단위로, 또는 이보다 짧은 시간을 단위로 보다 세속적인 생각에 의해 유지된다. 끊임없이 양심을 자극하는 인식과 감정이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Mitchell Stephens, 2007/ 2010, p.72).

《시속소문》은 경주인(京主人) 계통의 사람이 《저보》를 송달할 때에 함께 보낸 것 같다. 기사는 국한문을 혼용하여 기록하였으나 조보나 저보와 같이 각 기사 앞에 ‘-’자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주인 계통의 사람이 기록하였다고 보겠다(박정규, 1982, p.163).

《시속소문》은 역사적으로 전근대적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후일 뉴스는 ‘정보의 질서’로 사회를 재편한다. 과거의 ‘언어의 질서’와는 다른 형태로 개인들의 정보욕구를 채워준다. 그러나 여전히 이 소문은 구술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구술사회의 ‘언어의 질서’는 ‘사실의 질서’와는 다른 차원이다. 소문이 지배한 구술사회는 현대 뉴스의 사회와는 판이하다. 스티븐스는 “구어 뉴스가 로마에서 실리시아까지 도달할 때 전달자에 의한 내용의 왜곡, 편파, 누락 없이 전달되기란 불가능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왜곡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문자 뉴스의 내용은 아무리 먼 거리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전 뉴스는 신속성에서 문자 뉴스보다 우월하지만, 뉴스가 동네 외곽으로 전해져 나가는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했다(Mitchell Stephens, 2007/ 2010, p.76).

물론 조선사회가 왜곡, 편파, 누락 등의 소문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왜곡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검증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조보》는 전통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다.

조보에 끼어 있었던 또 하나의 형태는 《소차(疏筵)》이다. 이것은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와 차자(劄子, 상소 축약형)의 내용이 소차서리들에 의하여 서사, 복제되어 소차군사들의 독자들에게 배달하였다. 필사신문 형태의 정사와 차자는 조보와 함께 계속 발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조보》, 《정사》, 《시속소문》, 《소차》, 《분발》 등은 신문이 신문사라는 기업적

인 기관에서 발행한 것과는 달리, 전근대적인 전통사회에 아직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민간 조직의 발행기관이 없었던 조선왕조시대에는 국가기관인 승정원에서 각 관청과 관원들에게 필요한 뉴스 내용을 게재하면 각 관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이를 필사하여 제각기 기별군사를 통하여 발송한 것들이다.

《조보》를 기록하는 관리가 아닌, 조선시대 ‘말(speech)’로 하는 직업 언론인이 있었다. 공론장의 형태로 그들은 언론 3사(司)에 속한 공직자였다. 소문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풍문(風聞)’에 위약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풍문탄핵(風聞彈劾)’으로 조선시대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다.

3. 조선시대 대간(臺諫) 언론

조선 개국 초기 건국 후 11월에 공론(公論)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공론은 “천하국가의 원기(元氣)이다. 간쟁(諫諍)은 공론의 근거가 되고 아첨은 공론의 독이 되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그 근거(諫諍)를 배양하고 그 해독을 제거한다면 바른 의론(議論)이 날로 앞으로 나오고 감언(甘言)·비사(卑辭)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했다(『태조실록』 태조 元年 11월 丙戌條; 김영주, 1985, p.116).

삼봉(三峯) 사상은 “언론이 열리고 닫히는 데 국가의 흥망이 달려 있으며,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론이 국가의 원기”라고 본 것이다(김영주, 1985, p.109). 그 정신에 따라 조선 시대는 간쟁을 담당할 언론 3사를 두었다. 언론 3사 관원들은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 성종 이후)으로 왕이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경연(經筵), 조계(朝啓), 조강(朝講), 주강(晝講), 석강(夕講) 등의 공론장에 참여한다. 그 중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들을 대간(臺諫)이라고 한다. 그들은 대략 11명 정도였다. 사헌부에는 대사헌(大司憲, 종2품), 집의(執義, 종3), 장령(掌令, 정4), 지평(持平, 정5), 대사헌(大司諫, 정3), 사간(司諫, 종3), 헌납(獻納, 정5), 정언(正言, 정6) 등에 불과하다. 사헌부에는 지역에 보내는 분대(分臺), 혹은 감찰(監察, 정6품, 24명)이 있었다.

그들은 품격은 낮지만 제도 언론인으로 공론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조선 초기국가는 ‘성리학(性理學)’⁵⁾으로 기틀을 닦았다. 성리학은 인간의 근본이 선하

5) 최만리(崔萬理)는 성리학의 발전을 위해 한자사용을 독려했다(p.170). 그는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촌스러운 속된 말이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에 사용했다. 그는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방편을 삼기 보

다는 것을 탐구함으로써 유교적 교화정치의 이론적 근거를 가졌다(이기백, 1986, p.258). 이 학문은 마음의 학문으로 심화시켜 경험주의, 수양주의 입장을 강화시켰다.

이황(李滉)의 말을 빌리면 이(理)와 기(氣)의 거름이다. 퇴계는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통괄한다는 주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성과 정의 근원을 이와 기를 분별(分別)하는 방법을 통해 구했다.

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 역시 4단과 7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는 이와 기로써 근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http://deluxe.britannica.co.kr>). 특히 ‘정(情)’에 대한 이해는 기대승과 8년 동안이나 토론을 벌이며 이기호발설로 정밀히 체계화했다. 곧 “4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고, 7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이라 하여 4단은 ‘이’에 근원하고 7정은 ‘기’에 근원하여 각각 발한다고 했다.

조선 전기는 “이(理)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형국”이었으나, 후기는 “기(氣)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으로 발전했다. 후자는 퇴계의 이론이 세속화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런 학문이 득세하는 한 일부 계층에게만 내적 경험을 중시하지만, 국민에게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훈련을 받은 왕이 백성에게 도를 깨우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다. 포퍼(K. P. Popper)가 말하는 닫힌 사회이다. 여기에는 지배계층에 순종과 복종이 있을 뿐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조선 초기는 왕권이 강한 사회였으나, 이성계의 역성혁명, 태종의 난, 세조찬탈 등은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왕권이 강화된 시기의 성종(成宗)은 자신의 조상들과는 다른 정책을 구사했다. 그는 초야의 사림(士林)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직설적으로 ‘왕에게 간’⁶⁾하였다. 제도적으로 봐도 큰 변화

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되는 문자를 습득하여 장구한 계책을 삼는 것이 낫습니다. (p.171) 만약 언문을 쓰면 벼슬아치 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익히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관원이 두 갈래로 나뉘질 것입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고심초사하여 성리의 학문을 중시하려 하겠습니까. 학문은 한자로 하게 되고, 성리학을 배우게 된다. 최만리는 그게 진리이고, 학문하는 자세이다.

세종이 최만리를 불렀다.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p.172). 세종의 말에 최만리는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를지라도 특히 문사의 6예(藝)의 한 가지일 뿐이다.”라고 했다.

- 6) 왕에게 간하는 성리학 상황에서 일반적 내용은 “신이 이런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먼저 임금의 마음을 바른다’ 했으니, 신이 크게 걱정하는 바는 전하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 옅니다. 한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뜻이 가려져 움직이면 문득 마땅하지 못하옵니다. 모든 정사를 해치고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 모두 이것이 옅니다.”라는 것이다(姜鶴年(인조 12년(1634), <光海의 東宮 왜 죽었습니까>; 李銓文(1986), 『조선시대의 언론/ 상소』, 사회발전연구소, p.24).

가 일어났다. 관리의 수는 일정한데, 양반은 자연히 대립이 심해지게 마련이었다. 성종은 공론장의 파이를 확장시킨 것이다.

사림파(士林派)들이 등장하여, 대간에 포진을 했다.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림파는 훈구파(勳舊派)를 몰아쳤다. 세조 이후 보수의 부정을 파내기 시작했다. 사림파로 대간으로 온 사람은 ‘간쟁’⁷⁾을 통해 독립성은 강화되고 그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모든 관료들의 대간의 치열한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대간의 정치적인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다(정두희, 1994, 204).

논리로 무장한 대간은 경연, 조계, 조강, 주장, 석강 등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대간은 상소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레토릭(speech communication)으로 자신의 논리를 폈다. 대간의 양심에 의한 자율적인 구제를 받아가면서, 중립적으로 간쟁을 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파당(派黨)의 일원으로 독자적 논리를 펼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일 수 있다. 더욱이 간(諫) 하는 말은 화를 불러올 수 있었다. 공론장은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위험을 갖게 되었다.

간쟁은 심학의 견지에서 다름으로써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정희량의 상소에 의하면 “‘간사한 것(奸)’이 충성(忠) 같기도 하고 ‘남을 혈뜬 어 없는 일을 꾸미는 것(訐)’이 더러는 ‘곧을 것(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교묘한 것(巧)’이 혹 ‘어눌한 것(訥)’ 같기도 하고, ‘탐욕스러운 것(貪)’이 혹은 ‘청렴한 것(廉)’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했다(정희량, 연산주 3년 1497; 이전문, 1986, P.92).

공론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성종 25년 동안 탄핵(彈劾) 열풍이 일어난 것이다. 성종대 고위 관리로서 탄핵된 사람의 수가 최소한 2,702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성종 10년까지 탄핵된 인사는 950명이다(정두희, 1994, p.113). 그리고 그 나머지 1,752명이 성종 11년 이후에 탄핵되었다. 이들은 모두 왕이 거듭된 만류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간에 의하여 거듭 탄핵된 사람들이었다(정두희, 1994, p.113).

성종 후반기에 성리학은 세속화의 길을 걷고, 대간의 ‘탄핵’⁸⁾은 더욱 극성을 부렸

7) 성리학 입장에서 왕 선조는 그가 뒷날 왕자들에게 ‘소학’ 배우기를 권장하며 이렇게 말했다(李珣 등(선조 7년 1574), 「황랍(黃鑣) 5백 근 무엇에 씹니까.」; 李銓文(1986), 『조선시대의 언론/ 상소』, 사회발전연구소, p.32). 그 내용은 “너희들이 내가 임금 노릇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줄 아느냐. 한 백성이라고 잘못 살면 모두가 다 나의 근심이다. 착한 일을 주창하는 수선(首善 성균관 학생을 말함)의 처지에 있으면서 토의를 강론하니 기대하는 바 크다. 마땅히 마음을 단련하고 성찰을 참아서 감도 닦아, ‘경(敬)’과 ‘의(義)’로 안과 밖의 수양을 쌓아서 다른 날에 참성비가 필지어다. 그래서 위로는 임금인 나를 돕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혜택을 끼쳐서 정치가 잘 되고, 풍속이 아름답게 되면, 이단이 유혹한다든지 하는 것은 염려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p.32)

8) 요즈음 관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간에서는 그 인물이 과거에 사소한 허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들추어 내

다. 정두희는 이들 탄핵을 ‘풍문탄핵(風聞彈劾)’으로 간주했다(정두희, 1994, p. 112). 쉽게 말하면 인사정책의 비밀스러운 속성에 비춰볼 때, 대간은 ‘소문’으로 인사탄핵을 한 것이다. 소문은 조선의 공론장을 흔들어 놓았는데 잘못된 소문은 ‘사회의 조정’에 실패할 뿐 아니라, ‘사회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물론 성종 당시에는 성리학의 골격이 작동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었으나, 연산군 축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성리학뿐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을 잃은 공론장의 활성화는 사화(士禍)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공론장이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한 것이다. 소문은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레토릭은 더욱 선동성을 지니게 되었다.

탄핵 내용은 심층 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결과에 관심을 가져, 결국 그 내용은 고발성 언론으로 한정되어 버렸다(조맹기, 2005, p.82). 대간은 좌천, 파직, 유형 등 엄한 벌을 받게 되는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대부들은 이(理)에서 파생되는 성리학이 명분 싸움으로 치닫게 됨을 인지했다. 대간의 11명 그리고 빈번히 보내는 분대와 감찰로는 공론장이 이성과 합리성을 구가하기는 여간 쉽지 않았다. 더욱이 대간의 빈번한 좌천으로 전문성을 잃게 되었다.

소문에 의한 탄핵이 그 속도를 더해갔다. 탄핵의 이유로 “나랏사람이 다 안다.,”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등으로 그러한 사실은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그러한 소문이 특히 사림 혹은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다(정두희 1994, p.116).

사대부의 탄핵은 대간의 탄핵으로 이어지고, 공론장은 아마추어 정신으로 운영되었다. 소문에 의한 탄핵이 가져다준 조선시대의 난맥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 사이 대간의 공론장이 아닌, 공식적인 《조보》가 등장한 것이다. 종종 당시부터 태동한 《조보》는 양반들에 의한 제한된 공론장이었다.

대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원론적으로 “사람 행실을 보고 사(邪)와 번(正)을 살피는 것을 명(明)이라 이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능히 시비를 판단하는 것을 총(聰)이라 이릅니다. 사와 정을 구분하고 시비를 분명하여 간(奸)이 능히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고, 아침하는 것이 능히 뜻을 현혹시키지 못하는 것은 강(剛)이라고 이릅니다. 옳은 것을 취하고 그릇된 것을 버리고 사를 내치고 정을 등용해서 확고하게 의심하는 바가 없는 것을 단(斷)이라 이릅니다(정희량, 연산주 3년(1497);

어 탄핵한다. 이러한 풍조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成宗實錄》 卷 281, 24년 8월 戊寅條; 정두희, 1994, p.114)

이전문, 1986, P.93).

이런 판단이 마비될 때 공론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나라의 질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희량은 상소에서 “신이 듣건대, 임금이 더불어 천위(天位)를 함께함도 오직 대신입니다. 그 직위가 백관을 거고 만사를 다스리며, 그 도는 임금의 덕을 기르고 음양을 다스립니다. 밖으로는 4이(四夷)를 진압하고 안으로 백성을 어루만집니다. 말은 반드시 국가의 이익을 돌아보고 행동은 못사람의 마음을 감복시키며, 평탄하거나 험하거나 한결같은 절제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길 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현(大賢)이 아니고서는 능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정희량, 연산주 3년(1497); 이전문, 1986, P.94).

조선 후기는 원론대로 공론이 작동되지 않았다. 부조화의 공론은 사회혼란이 가져온 것이다. 정희량은 상소에서 “무엇으로 덕화를 이룩하고 천지의 화기에 순응하여 만물을 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교화가 이 때문에 나로 거칠어지고 풍속이 자연퇴폐해지며, 천지간에 불평과 억울한 기운이 쌓여 음양이 순서를 잃고, 샘물이 끓어오르고, 겨울에 꽃이 피고, 여름에 서리가 내리며, 장마 지다가 가물고, 우박 쏟아지고, 살벌(해성)이 나타나고 무지개와 곤충의 변괴가 잇달아 일어났습니다.”라고 했다(朴祥 金淨. 중종 10년(1515); 이정문, 1986, P.217)

또한 동 상소에서 “화한 기운은 상서로운 일을 가져오고 괴상한 기운은 이변을 가져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리학의 질서는 쇠하고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었다. 이를 비판하는 실학자는 성리학의 심학이 아닌, 경세학에 관심을 가졌다.

4. 실학과 독립신문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은 “자신의 불우에서 오는 일종의 저항의식이 그로 하여금 농민생활의 비참을 절감케 했을 것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이리하여 개념적인 왕도정치의 공소(空疎)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생활의 확보를 정치의 기간으로 한 그의 사상체계가 여기서 도출되었음을, 수록 도처에 산견(散見)되는 농민생활의 묘사에서 또는 옹호에서 엿보게 된다.”라고 했다(천관우, 1997, p. 231).

유형원은 사회 비판을 통한 ‘감시(surveillance) 기능’을 언급했다. 또한 실학자 이익(李瀾)은 조선시대의 대간을 분석했다(정두희, 1994, p.172). 이익은 풍문탄핵

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간관들이 근무한 기간과 그들의 재임기간 중에 논란한 사건을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 밑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었다. 그는 이념이 아닌,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대간 제도의 모순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이익은 역사적 방법으로 “간관제도(諫官制度)가 한대(漢代)에 시작된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언로가 좁아지게 되었다(星湖先生全集 卷 45, 論諫官條; 정두희, 1994, p.190).”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약용(丁若鏞)은 『경세유표(經世遺表)』의 「사간원조(司諫院條)」에서 대간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실학파는 실증주의를 주장하며, 풍문에 의한 정치를 불식시키기를 원했다. 그들은 경세학으로 성리학의 심학을 경제 원리를 첨가시킨 것이다. 그들은 대간의 언로가 확대되기를 원했다. 개화파가 그 실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개화파의 결실은 급진 개화파 서재필(徐載弼)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것이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에 순 한글을 주장했다. 한글은 익히기 쉬운 글이어서 공론장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대간제도가 공론장을 축소시키는 의미를 가졌다면 《독립신문》은 공론장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사적 ‘생활세계’가 신문에 등장한다. 관보수준보다 높은 사적 세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등장과정과 더불어 공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조선 초기 다루던 구술내용과 실학파의 논의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세종이 한글 창제 당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만리(崔萬理)가 상소를 올리기 석 달 전인 세종 25년 12월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는데 일반에 공포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를 넘겨 26년 하복 관리들에게 언문 강습을 시키고 각공(刻工)을 모아 활자를 새기기 시작하자, 최만리가 집현전 부제학으로서 상소를 올렸던 것이었다(崔萬理, 1445; 이전문, 1986, p.175).

최만리는 “후세에는 임금의 신하만 못해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은 사례가 많았으나, 세종 임금 때에는 신하가 임금만 못해서 대왕의 큰 뜻을 오히려 다 펴지 못하게 한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했다(최만리, 1445/ 이정문, 1986, p.168). 분명 최만리는 엘리트 중심의 복고적 사고를 가졌다. 그는 중국 요순(堯舜)시대를 구가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실학파는 복고가 아닌, 진보, 기술발전, 경제발전에 더욱 방점을 찍었다.

사회는 변화를 거듭하게 되고, 사회신분이 해방되었다. 정조(正祖)는 재위 3년(1779) 도승지 홍국영의 건의를 받아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리수 등 네 명의 서자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특채했다. 또한 이덕무, 박제가 무리는 “문체가 전적으로 패관(稗官), 소품(小品)에서 나왔다.”라고 했다(이덕일, 2010.7.4~5). 패관 문체가 공식

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서민들의 사생활이 공적 담론으로 등장했다.

누구에게나 공론장이 열렸다. 새벽이 오기 전에 짙은 어두움이 있게 마련이다. 대원군이 집정한 갑자년에서 계유년에 이르는 십 년간은 나라 안이 온통 떨며 무서워하였고 백성들은 잠시라도 혀끝을 서로 경계하며 감히 조정의 일을 말하지 못하였다(『매천야록』, 卷 일 甲午以前; 채백, 2006, p.24).

항상 그들은 귀신이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황현, 1978, p.35; 채백, 2006, p.24). 한편 이러한 사회 불안은 환경에 대한 정보 욕구를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이와 같이 상승된 정보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가 없을 때에는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언비어란 중대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보도와 통신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지 못하여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뉴스라고 규정할 수 있다(이효성, 1988, p.92; 채백, 2006, p.24).

당시 서양인들과 일본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황현, 1978, pp.117~121, 채백, 2006, p.25). “서양인들이 아이를 삶아 먹는다”, “일본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민간에 흩어져서 우물에 독약을 넣어 그 물을 마시면 죽는다.”라는 소문이 성행했다고 한다.

소문이 득세하는 가운데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심학(心學)이 아닌, 기학(氣學)이 공론장을 통해, 자동 조절되는 사회가 준비되고 있었다. 한편 패관 문체가 《독립신문》 기사에 실리기 시작했다. 《독립신문》은 1896년 7월 11일 설치된 독립협회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를 통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규모를 키웠다. 조선 후기는 점점 열린사회로 가게 되었다. 민권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이성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로 이전하고 있었다. 공론장에서 합리성을 찾기 시작했다.

정부와 독립기구로서, 《독립신문》 탐보원(探報員)이란 이름으로 현대에서 명명한 전문직 ‘기자’가 등장한다. 그 후 1898년 4월 9일 대한제국 최초의 일간신문 《매일신문》(1898년 4월 9일 창간)에서 기재원(記載員), 기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신문은 1면에 논설, 제2면에는 내보(內報)라 하여 정치문제를 다루었다. 제3면과 제4면에는 외보로서 외국소식과 학문, 개화문명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인쇄된 《독립신문》은 국문과 영문의 2개 언어로 4면을 격일간으로 발행하였다. 그 중 1~3면은 국문으로 그리고 4면은 The Independent라는 제호의 영문판이 발

행하였다. 뒤이어 1897년 1월 5일부터는 영문판은 따로 분리하여 국문판과 영문판 각기 4면씩 발행하였으며 1898년 7월 1일부터는 국문판 일간으로 전환하였고 영문판은 그대로 격일간을 유지하였다.

5. 공론장의 확장, 소문에서 신문으로

《독립신문》 기사 분류는 창간 초기부터 ‘논설’과 ‘관보’, ‘잡보’, ‘광고’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외에 ‘외국통신’이나 각부 신문과 전보, 별보 등의 때에 따라 지면에 게재되었다. 과거의 《조보》, 《정사》, 《시속소문》, 《소차》 등을 게재할 만큼 충분한 지면을 가졌으며, 인쇄로 대량생산 체제가 가능했다. 그 내용은 다양할 수 있었으며, 한글로 작성되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서체는 필사체와는 달리, 인쇄체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독립신문》은 민권을 존중하며,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누구나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 신문은 사회를 ‘감시’하며, 그 정보는 사회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화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집단 정체성은 그 사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다. 그러나 소문에 의한 왜곡된 정보는 언론의 3 기능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혼란의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대간의 풍문탄핵은 사회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조보》의 관급 기사 일색과는 달리, 《독립신문》은 확장된 공론장 개념을 지녔다. 잡보의 사회면 기사가 부각되면서 민중의 생활세계가 반영되었다. 한편으로 《독립신문》은 독자란으로 일반인들을 참여시켰다. 이 신문이 등장함으로써 소문과 풍문은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갔다. 정보가 인사뿐 아니라, 경제학의 다양성 소식을 게재했다. 심지어 광고까지 게재했다. 정보가 빨리 유통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소문은 그만큼 위력을 잃게 되었다.

더욱이 《독립신문》의 〈잡보〉는 정보 제공에 치중하였음을 말해준다. 범죄나 재판, 사건, 사고 등을 부정적 소재, 또한 관리의 선정이나 업적, 미담 등을 긍정적 소재 등이 게재되었다(채백, 2006, p.124). 사적 생활세계가 공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구의 상업주의적 뉴스 가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온 것이다.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탐관오리를 알면 세상에 그 사람

의 행적을 페일터이요, 사사백성이라도 무법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차저 신문에 설명할 터이옵.”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왕과 대신들 사이에 대간이 주도한 공론장이 아니라, 비판 기능을 통해 환경감시뿐 아니라, 실증성을 강화시켰다.

공론장에 누구나 참여하게 할 만큼 공론장의 규모가 커졌다. 그 만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독립신문》은 대간과 같은 관료 기구가 아닌, 독립적 기구가 되었다.

필사체가 아닌, 풍문이 신문매체의 공론장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들 내용은 쉽게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열린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독자투고가 활성화되었다(채백, 1994, 41, p.136).

독립신문이 창간호부터 독자 투고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독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며 독립신문 입장에서는 당시의 제작 여건에서 좋은 기삿거리를 손쉽게 얻으면서도 명분도 있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채백, 1994, p.41).

독립신문은 독자 투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 독자 투고 내용 중에 투고자의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내용이 분명하고 조리가 있으면 대부분 기사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립신문》은 죄수가 투고한 내용도 지면에 소개되고 있다. 1899년 3월 15일과 16일자 주상호의 투고 4건과 1899년 7월 1일에는 배재학당 학생의 편지가 소개되고 있다(채백, 2006, p.154). 더욱이 논설에까지 독자투고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론장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상황은 독립신문을 더욱 발전하게 했다. 1895년 6월 근대적 우편 사업이 재개되어 1896년 6월까지의 경부선과 경의선, 경원선 그리고 호남선을 잇는 기간선로가 완성되었으며 1898년 4월 6일 사이에는 전국적인 우편망이 일단락되어 우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채백, 2006, p.169). 따라서 독립신문의 독자 투고는 국내의 경우 이러한 우편망을 이용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장이 조선시대 사대부 그리고 사람들만의 영역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와는 달리, 공론장의 영역을 확산시켜 왔다. 그제 언론 3사(司)에서든, 조보, 정사, 소차, 시속소문, 분발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공론장을 형성하고, ‘일반의지’를 표출했다. 그들의 형식은 필사이거나, 인쇄이거나, 최근 인터넷과 트위터 등 형식을 띠었다.

내용면에서 조선 초기에는 성리학, 이(理)와 기(氣)의 문제 그리고 인사의 영역으로 중요성을 변화시켰다. 그 이후 경제학의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그 영역은 《독립

신문》 내용으로 전승됨이 틀림없다.

《독립신문》은 자유와 평등이 개인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독립, 명예, 권리 등 근대 인권 사상과 맞물렸다. 사적 생활세계가 공론장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사이 독자란을 통해 공론장의 영역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 발전 과정은 소문에서 신문으로 ‘합리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영주(1985.5.1), “三峯의 언론사상과 태조조의 언론현실 考”, 『한국언론학보』 제19호.
- 구자혁(1993), 『장지연』, 동아일보사.
- 김봉규(2010), “안중근과 미래신화-동양평화사상의 현대적 해석”, 가톨릭 언론협의회.
- 朴祥, 金淨(중종 10년, 1515), 「상소- 조강지처를 돌아보소서」.
- 박승관(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 박정규(1982),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 《成宗實錄》 卷 281, 24년 8월 戊寅條.
- 安在鴻(1935), 〈조선신문소사〉, 《조선일보》 1935년 7월 6일~ 7월 28일.
- 이기백(1986), 『한국사신론』, 일조각.
- 이덕일(2010.7.4~5), 〈서자 출신 지식인 등용으로 노론의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다〉,
《중앙SUNDAY》.
- 이전문(1986), 『조선시대의 언론/ 상소』, 사회발전연구소.
- 이희승(2001),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 장지연(1956), “霸窓手緣”, 『위암문집』, 국사편찬위원회.
- 정두희(1994), 『조선시대의 대간연구』, 일조각.
- 정희량(연산주 3년 1497), 「상소- 하늘 무서운 줄 모릅니까」.
- 조맹기(2005), “조선시대 언론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사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 채백(1994), “《독립신문》 독자 투고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3
집, pp.35~66.
- 채백(2006), 『독립신문 연구』, 한나래.
- 천관우(1997),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 천관우(1975), 『한국사의 재발견』, 일조각.
- 崔萬理(1445), “훈민정음 창제 대신(大臣)도 모릅니다.” 이전문(1986), 『조선시대의
언론/상소』, 사회발전연구소.
- 崔貞泰(1992), 『한국의 관보』, 아세아문화사.

『太祖實錄』 태조 元年 11월 丙戌條.

황헌(1978), 『매천야록』, 卷 일 甲午以前

Altschull, J. Herbert(1990), From Milton to McLuhan- The Ideas of Journalism,
New York: Longman.

Habermas, Juergen(1962), Strukturwandel der Oe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urgenrlichen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Verlag: Burger, Thomas(1999)
(tran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한승완 옮김
(2004),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Stephens, Mitchell(2007), A History of News, Oxford University Press, 이광재·
이인희 (2010), 뉴스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북스.

Stock, Brian(1983), The Implications of Literacy, Princeton.
<http://deluxe.britannica.co.kr>.

인천의 근대건축

손 장 원
재능대학교

인천의 근대건축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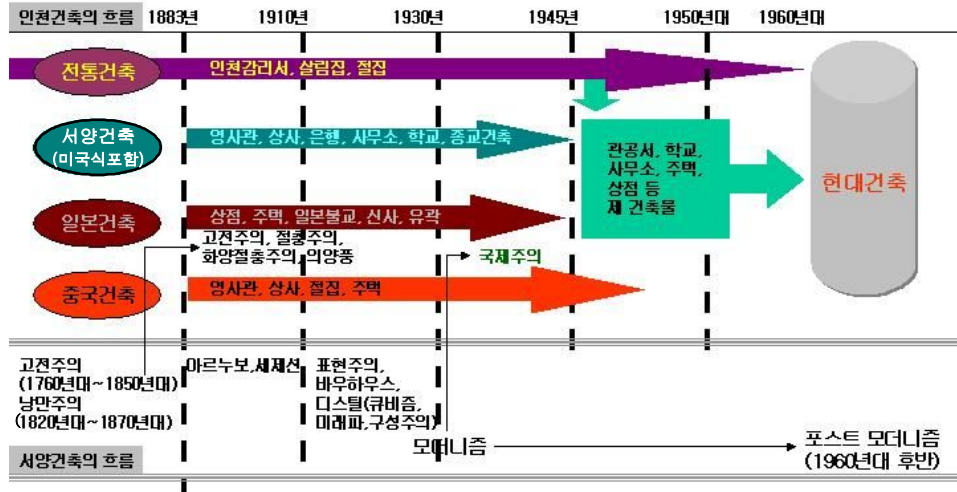
1. 들어가며
2. 인천의 주요 근대 건축물
3. 인천의 근대건축물을 설계한 사바쥔

1. 들어가며

표 1) 인천근대건축물의 유입유형

구 분	사 례
일본인이 세운 식민건축물	부청, 영사관, 경찰서, 우체국, 은행, 신사, 사찰, 학교, 병 원, 숙박시설, 극장, 주택, 상사 등
선교사가 세운 구미 종교계통의 건축물	답동성당, 내동성당, 내리교회, 화도교회, 강화성당, 온수리 성당 등
영사관 건축물	청국 인천영사관, 영국 인천영사관, 러시아 인천영사관 등
중국인과 유럽인의 주택	중국인의 점포주택, 존스톤 별장, 세창양행 사택, 모오스 주 택, 타운센트 주택, 세관관리 주택 등
중국인과 유럽인의 상업건축물	스튜어드호텔, 한국호텔, 홈링거양행 인천지점, 세창양행, 타운센드양행, 광창양행 등

그림 1) 인천건축의 흐름과 전개과정



2. 인천의 주요 근대 건축물

1) 구 인천 우체국(1923년)

우리나라에 근대식 우편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정국이 낙성된 1884년부터이나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갑오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전국 각지에 우체사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인천우체사는 1895년 6월 경동에 청사를 마련하여 설치되었으며, 1898년경 내리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현 건물은 1924년에 세워진 것이다. 외관은 크게 가로방향으로는 기단, 벽체, 엔타블레이처 등 3개의 영역



〈구 인천우체국〉

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로방향으로는 출입구가 설치되는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5개로 구분하고 여기에는 벽을 돌출시켜, 1, 2층을 관통하는 6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연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작은 기둥을 여러 개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출입구는 잘 보이도록 벽에서 약간 돌출시켰다. 하단을 화강석으로 3단을 쌓고 그 윗부분은 벽돌을 쌓고 그 위를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석조 건물로 보이도록 하였다.

2) 교육기관

(1) 영화초등학교 교사(1910년)

영화초등학교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1892년 4월 미국 선교사 조원시에 의해 영화학당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이다. 1910년 3월에 준공된 이 건물의 구조는 반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다. 지붕형식은 맞배지붕과 맨사드 지붕이 같이 사용되었다. 벽돌조로 벽돌쌓기는 화란식이며, 3층 발코니는 인자(人字)형태로 내부에 서까래를 노출시켰다. 특히 3층은 예배실로 십자형(十字形) 평면으로 계획하여 종교적 의미를 가미시켰다. 선교사들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간결한 양식과 더불어 지붕 밑에 다락방을 설치하는 등 장식적 요소와 더불어 합리성을 추구한 건축물이다.

(2) 창영초등학교 교사

이 건축물은 동구 창영동 37-1에 위치한 것으로 일자형 단순 배치에 벽체 상단은 복공화강석으로 만든 아치형을 이루고 있으며, 현관은 홍예석으로 처리했다. 외형은 대칭입면에 넓은 창과 평화한 면이 직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붕에는 도머(Dormer창 : 지붕 아래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붕창)창이 설치되어 있다. 1층 창문은 둥근 아치, 2층 창문은 평아치로 처리하여 변화성을 주고자 했다. 적벽돌과 화강암, 인조석을 적절히 조합하여 색 조화, 층 구분, 공간조성을 도모하였다. 교실 내벽은 나무 줄대심을 넣고 흙을 발랐으며, 현관 복도의 난간, 기둥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3) 중산학교학교(1955년)

화교학교는 1901년 설립됐으나 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학

교인가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학교 설립을 인가했다. 인천시 중구 선린동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교(華僑) 학교가 외국인 학교로 정식 등록됐다. 화교소학교는 학년 당 1학급(정원 35명)씩 모두 210명, 유치원은 80명, 화교중산 중·고교는 학급당 45명씩 모두 135명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화교학교는 교육부의 ‘외국인 학교 운영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도시에 있는 외국인 학교처럼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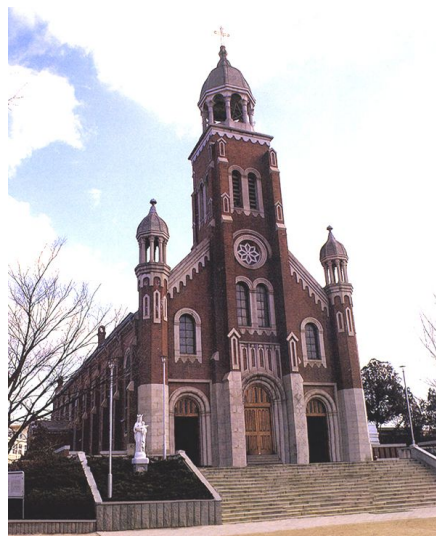


<창영초등학교(2007년)>

3) 종교시설

(1) 답동성당(1897년)

1890년대에 건축된 성당으로 초창기에 세워진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이다.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 빌렘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부임하면서 답동 언덕에 설립한 건물로 1890년 7월 성당 건축 정초식을 갖고 1894년 착공해서 1897년 고딕양식의 단층으로 세워졌다. 현재의 모양은 1933년에 옛 성당건물을 보존하면서 외곽을 벽돌로 쌓아올리기 시작하여 1937년 드뇌 신부에 의해 완공된 성전으로 로마네스크양식을 띠고 있다. 중앙의 탑상부와 양측의 작은 첨탑의 상부에 돔을 얹어 아름다운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는 마루 바닥에 의자 없이 미사를 드렸지만, 1973년 인조대리석 바닥으로 개조하고 의자를 설치하였다.



<답동성당>

(2) 성공회 내동성당(1956년)



<성공회 내동성당 내부>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이며, 기독교의 한 유파인 영국 성공회(Anglican Church)는 1890년 9월 인천을 통하여 전파되었다. 성공회는 서울을 비롯하여 강화와 인천 등 주로 기호지방(畿湖地方)에 전파되었다. 영국 해군 중군 신분 고요한 주교 등 선교 동역자 6명이 인천항에 첫발을 내딛어 1890년 9월 29일 성당을 건축한 후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902년에는 한 때 러시아 영사관으

로, 1904년에는 성공회 신학원으로 1956년까지 운영되었으며, 당초 건물은 한국전쟁 시 소실되었으나 1956년 6월 23일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물 형태는 지붕의 목조트러스를 제외하고, 외벽과 주요부재는 화강암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로마네스크 양식의 석조건물이다. 특히 적벽돌 영롱쌓기로 쌓아올린 외벽의 입체감과 빈 부분이 그대로 내부로 투영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회건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빛에 의한 극적효과 연출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이 성당을 설명하면서 성당의 처마가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처마양식을 가미하였다고 하였으나, 코니스부분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한 예는 그리스나 로마건축의 페디먼트에서도 볼 수 있으며, 1068년 프랑스에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에티엔느 성당의 앱스(apse)부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성당의 처마가 우리의 전통양식을 가미한 것이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

(3) 구 여선교사합숙소(1904년)

인천 기독교사회복지관은 19세기 말 미국 감리교회가 파견한 여선교사들의 합숙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립된 건물로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벽돌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여선교사 숙소(일제강점기)>



<여선교사 숙소>



<의선당>

(4) 의선당(중국인 사찰)

중국인 마을에는 원래 우리나라 종단과 관련이 없는 중국천주교, 중화기독교, 중국불교 등 3개의 종교시설이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불교사찰만이 남아 있다. 중국천주교회는 천주교인천교구에서 매입하였으며, 중화기독교회는 상가를 건축하기 위해 철거하였다.

4) 업무시설

(1)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1897년)

구 일본제일은행인천지점은 당초 부산지점의 출장소로 출발하여 1888년 인천지점으로 승격되었고, 1909년 한국은행이 창립되면서 한국은행 인천지점으로 변경되었으며 1911년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 바뀔에 따라 조선은행 인천지점으로 바뀌었다. 1899년에 64평의 석조 단층 건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설계를 일본인이 하고 모



<신축 당시의 제일은행>

래·자갈·석회를 제외한 벽돌·석재·시멘트, 목재를 일체의 건축자재로 일본에서 반입하여 사용하였다. 외벽은 다듬어 쌓고 처마부조에는 동그란 구멍이 뚫린 패러핏 난간을 설치하였다. 지붕 중앙에는 돔을 설치하는 등 후기 르네상스 건축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8월 이후 건물보수 준공 공사를 거쳐 현재 중구청 관광개발과가 사용하였으며, 2010년 현재 공사를 마치고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일본제1은행은 ‘제일국립은행’이 원래의 명칭이며, 일본의 국립은행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최초의 민간은행으로 1873년 8월 1일에 영업을 시작한 일본 최초의 상업은행이자 최초의 주식회사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정부로부터 은행권발행업무를 위탁받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침탈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었다. 20은행, 해(海)은행, 후로카와 은행 등을 병합하였으며, 1943년에는 미쓰이(三井) 은행을 합병하여 제국은행이 된다.

(2)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1890년)

일본이 한국의 금융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어 세워진 은행으로 제18은행인천지점의 업무가 언제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1954년 상공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으로 발족한 한국흥업은행으로 사용된 이후 1992년까지 카페로, 그 이후에는 중고가구 도매상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보수공사를 마치고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기단을 석조로 처리한 뒤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돌을 붙여 전체적으로 석조 건물로 보이도록 한 건물이다. 지붕형식은 모임지붕이며, 일식기와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출입구에는 상부와 좌우측을 석조장식으로 마감하여 상징성을 높였다. 군산에 설치되었던 18은행지점도 이 건축물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3)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1892년)

일본 오사카에 본점을 두고 있던 일본 제58은행이 일본지계에 설치한 지점으로서 1892년 7월에 완공되어 문을 열었다. 일본 제58은행은 대외 상거래가 가장 활발한 오사카(大阪)에 본점을 두었던 시중은행으로, 이 지점 건물은 벽돌조 2층으로 석판마감이고, 면적은 비교적 소규모로 67.35평 정도였다. 주재료인 벽돌은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며, 프랑스풍의 건축물로 초기 양식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건물의 진입은 지상으로부터 1m 올라가서 측면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단의 계단이 놓여져 있다. 1층은 홀과 화장실이 있으며, 폭 110cm에 45°정도의 가파른 계단을 통하여 2층과 연결되어 있는데, 2층은 목조의 발코니형식으로 처리되어 도로로 돌출되어 있다. 제58은행은 후에 제130은행과 제3은행 등 군소은행과 합병하여 야스다 은행(安田銀行)으로 개편되었다. 해방 후에는 조흥은행(1942년 발족)이 1946년 4월 1일 조흥은행 인천지점을 이곳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흥은행이 1958년 7월 신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은행건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한때 대한적십자 인천지점 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인천광역시 요식업조합으로 사용 중이다. 개점 시기의 건축물과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해보면 우선 정면부 지붕 상단에 있던 크레스팅이 없어졌고, 지붕을 지지하던 2층 발코니 기둥이 원래는 좌우에 2개씩 있었지만 현재는 각각 하나의 기둥만 남아 있다. 또한 비늘판이었던 지붕마감이 현재는 합석기왓가락 마감으로 되어있다.



<보수공사 중인 구 제18은행
인천지점 내부>

5) 기타

(1) 제물포구락부(1901년)

이 건물은 인천에 거주하던 미국·독일·러시아·일본인들이 사교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회관으로 1901년 6월 22일 낙성되었다. 1913년 각국의 조계(租界)들이 철폐됨에 따라 이 건물은 일본 재향군인회관·부인회관으로 이용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미군이 사용하였고, 1953년부터 1990년까지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중구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다.

건축물은 벽돌을 쌓아 만든 벽돌조 2층 건물로 지붕형태는 합각지붕과 맨사드 지붕으로 처리하였으며, 마감재료로는 양철을 사용했다. 정면은 가로와 세로의 방향으로 3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였다. 세로방향으로는 가운데 부분을 약간 돌출시

키고, 그 위에 맨사드 지붕으로 처리하여 변화감을 연출하였다. 정면의 중앙부와 오른쪽부분 창문 상부는 페디먼트로 장식을 두었지만 좌측 창문상부는 평아치로 처리하여 전체적인 대칭성에서도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몰탈을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 벽돌조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지만 코니스부분의 텐트가 조적조임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에는 사교실·도서실·당구대 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따로 테니스 코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는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도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변형되어 있는 상태이다.



〈구 제물포구락부〉

(2) 홍예문(虹霓門;1908년)

무지개처럼 생긴 문이라는 뜻에서 ‘홍예문’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혈문(穴門)’이라는 이름도 있다. 철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 공병대가 1906년 착공하여 1908년에 준공하였다. 일본인이 자국의 조계를 확장하기 위한 축조물이지만, 현재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인천의 명물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그 당시 일본의 토목 공법 및 재료에 대한 사료로서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홍예문〉

(3)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제수변실은 배수지에서 배수관의 단수 및 유압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제수밸브를 보호하는 시설물로써, 원통형이며 일체식 무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1905년 나카지마(中島)박사에 의해 경인수도 설계가 완성됨에 따라 1906년 11월 착

공하여 1908년 준공되었으며, 1910년 10월 노량진 수원지 정수시설이 준공되고 동년 12월 급수를 개시하였다. 표고 56.8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36,780㎡, 5,000㎡ 저수조 3개를 갖추고 있으며, 현존하는 배수지 건물로는 제수변실과 23단의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 계단과 철제 정문이 있다.



<송현 배수지 제수변실>

(4) 해안 천주교 교육관(1939년)

1939년에 청조계지 내에 세워진 중국인 주택이다. 중국인 여성연씨 소유의 주택이던 것을 1995년에 천주교재단에서 매입하여 현재는 교육관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인 주상복합 건물로 중국의 사합원(四合院, ‘口’자 구조)주택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2층 발코니 형태 및 창호 등의 재료, 형태 등이 특징적이다. 내부 상태나 각 부위의 디테일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5) 공화춘(1948년 ?)

건축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건물 관리대장상에는 1948년으로 되어 있다. 청조계지 내에 지어진 본 건물은 청요리의 대표적인 음식점으로 구 대불호텔의 중화루와 그 궤를 같이하는 유명한 곳으로 현재 몇 채 남지 않은 중국인 마을에 있었던 청요리집이다.



<공화춘>



<회의청 내 관우의 위패>

(6) 회의청(구 화교회관)

화교학교 안에 있는 건물로 원래는 청국영사관 회의청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후 화교회관을 거쳐 현재는 관우가 모셔져 있다.

(7) 선린동 중국인 주택(1947년 ?)

1947년 건설된 중국인 주택이다. 청국조계지였던 이 지역은 1914년에 조계가 철폐된 이후에도 중국인들이 계속 거주하였다. 이 때문에 업무용이나 주거용 건축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이 건물은 조계지 계단과 붙어있는 곳에 위치한 주택으로 2층 3호 연립주택이다. 이 일대에는 이러한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하나 둘 사라지고 현재는 이 집을 비롯하여 몇 채만이 남아 있다.

(8) 일본인주택

인천에 세워진 마찌야(町家)형 주택은 일본의 전통 도시주택인 마찌야(町家)와 같은 유형으로 대개 2층이며 구조는 목조이다. 나가야(長屋)형 주택은 일본의 나가야(長屋)와 같은 유형으로 1층이며 구조는 목조이다. 개항초기 인천에 세워진 일식주택들은 대부분 목조이며 점포가 달린 주택들로 마찌야 형식과 나가야 형식이 대부분이었고 주거기능만을 갖는 주택은 일제강점기에 관리나 사업가 등 비교적 상류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건축되었다.

3. 인천의 근대건축물을 설계한 사바찐

(Afanasij Ivanobich Seredin Sabatin, 1860-1921)

우크라이나 출신이며 정식 건축학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비정규 학교인 ‘해양강습소’ 출신이다. 1883년 독일인 뮐렌도르프가 외교고문으로 한국에 부임할 때 그를 따라 들어와 활동하다가 1905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했으며, 이후 일본과 중국 등을 전전했다.

사바친은 국내 기록에는 ‘살파정’(薩巴丁), 혹은 ‘살파진’(薩巴珍)이라는 표기로 등장하며 한국 최초의 서양인 건축가로서 독립문과 러시아공사관, 석조전 외에도 손탁호텔, 덕수궁의 정관헌·중명전·돈덕전·구성헌, 경복궁의 관문각, 인천의 세창양행과 해관청사 등을 설계했다.



세레진 사바찐



러시아 인천영사관



제물포구락부



러시아 서울영사관



홍령거 양행 인천지점

그림 2) 사바찐이 설계한 건축물 비교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사바찐은 뮐렌도르프를 만나 우리나라에 왔다.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로 사바찐이 인천을 통해 입국한 것은 1883년 9월 17일이며, 입국 당시 그의 직명은 영조교사(營造敎士)였다. 가족과 함께 인천에 온 사바찐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왕궁의 도면을 작성하는 일과 벽돌 생산을 위한 벽돌제조 가마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은 뮐렌도르프를 통해 지시되었고 사바찐은 인천에 머물면서 이를 수행했다. 인천해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1888년 4월 해직할 때까지 인천에서 건축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그는 인천에서 인천해관청사(1883년 말), 세창양행 사택(1884년)¹⁾ 등을 설계했다. 또한 1884년 말에는 인천 최초의 부두를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했다. 해관근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활동을 재개한 이후에도 ‘대조선인천제물포각국조계지도’(1888년 7월 2일)를 작성했고, 각국조계지의 만국공원(1888년), 홈링거양행 인천지점 사옥(1898년 8월) 등을 설계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사바찐이 다시 인천으로 오게 된 것은 홈링거양행 인천지점 사옥을 설계한 계기다. 그는 1899년 11월부터 동청해상기선회사 인천대리점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인천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당시 그는 세창양행 사택에 세를 들었다. 그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과 서울의 건축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1900년에는 제물포구락부(1901년 6월 완공)를, 1902년에는 러시아 인천영사관을 설계했다. 러일전쟁 후 사바찐과 가족들은 인천에서 프랑스 함선에 몸을 싣고 고국으로 돌아감으로써 23년에 이르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1) 김태중은 뮐렌도르프의 주선으로 사바찐이 세창양행을 설계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최성연이 개항과 양관역정에서 밝히고 있는 중국인 대목에 의해 지어졌다는 파울 슈르바움의 증언과 상치된다.

근대 도시 공간과 유흥 풍속

서 지 영
고려대학교

근대 도시 공간과 유흥 풍속

◆ 목 차 ◆

1. 근대 도시 문화와 유흥 공간
2. 요리점과 기생
3. 카페와 여급
4. 유흥 공간 속의 모더니티

1. 근대 도시 문화와 유흥 공간

도시화가 가속화되던 1920~30년대 경성에서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와 새로운 유흥풍속이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된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형성된 ‘요리점’은 전통적 기예의 전수자였던 기생을 활용하여 전근대 시대의 풍류 문화를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 유흥공간이다. 1930년대에 널리 확산된 ‘카페’는 여급을 배치하여 서구적 취향의 향락을 대중들에게 제공한 새로운 도시 유흥공간이다. 이 두 공간은 모두 식민자 일본의 매개 속에서 굴절을 겪는 식민지 근대 풍경의 일부로 자리한다.

요리점과 카페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대 유흥산업의 일부였으며, 기생과 카페여급은 여성의 몸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배치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여성의 몸이 근대 유흥 산업 속에서 어떻게 전유되고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 시기 스스로의 몸을 노동의 자산으로 삼았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근대 초기 기생과 카페여급은 근대 일부일처 가족제도 형성에 위협을 가하는 유흥 공간의 여성들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공적 공간에서 유흥을 매개했던 기생과 여급은 여성의 몸에 작동하는 중층적인 사회적 기제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사적 지표들이다. 또한, 식민지 시기 요리점과 카페는 근대 도시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형식의 유흥이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하여 구현되고 양산되는 모더니티의 산물이기도 하다.

2. 요리점과 기생

1) 기생 집단의 근대적 재편

(1) 경시청령 제5호, “기생단속령”/ 제6호, “창기단속령”(1908. 9)

- 가무음곡을 업(業)으로 하는 기생들은 ‘賣淫’을 업으로 하는 창기와 법제적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妓業(창기업)을 하기 위해 경시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기생조합’(창기조합)에 가입하여야 했다.

기생조합에 소속되었던 기생들은 총독부가 주도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동원되었는데, 1905년 이후의 박람회, 각종 관치행사를 광고하고 흥행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 끌어 오는 역할을 요구받았다. 그 외 각종 단체나 기간 산업 및 민간기업 광고 행사에도 기생을 유치하였는데, 이렇게 식민권력의 관제행사에 동원되고 조선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기생 이미지는 제국의 식민지에 대한 욕망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때 ‘식민지의 은유’로서의 기생이 문제시된다. 1930년대 일제가 추진한 관광산업 속에서 기생은 조선풍속을 대표하는 주된 모델이었다.

(2) 기생조합(권번)과 기생학교(‘학예부’ 또는 ‘기생양성소’)

1908년 관기 제도의 폐지 이후, 서울과 지방의 기생들은 ‘기생조합’이라는 형태 속에서 재조직되었다. 기생조합은 일본의 예기조합(검번, 권번)을 따른 것으로 1915년 이후에 ‘권번’이라 명명되었다. 당시 권번 안에는 ‘기생 양성소’가 설치, 이전의 궁중 장악원이나 지방의 교방이 수행했던 가무교육을 담당하였다.

- * 1913년 전후 가무내용- 전통적인 여악 레파토리(가곡, 시조), 궁중정재, 평양과 남도 기생의 레파토리(서도소리, 남도소리, 잡가, 산조 등)
- * 1920년대 전후- 판소리(창극), 신파극, 서양무용, 일본음악까지 확대.

보통 3년 정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기생들은 요리집이나 일반 사적 연회현장으로 ‘놀음’을 나가게 된다. ‘놀음’을 나간 기생은 요리집에서 돈이 아닌 증서를 받아 권번에 넘기면, 권번에서 일정한 비율로 중계료를 제하고 월급 형식으로 기생에게 나머지를 준다.¹⁾ 이러한 권번 내 기생양성소의 엄격한 가무훈련은 기생

1) 보통 ‘놀음차’(화대)는 시간당 1원 50전 정도, 수익분배율은 1-3(권번): 1(요리집): 6-8(기생) 정도. 기생들의 평균 월수입은 50-60원 정도이지만, 일부 일급기생들은 2천원이 넘는 고수입자.

들이 전근대 예인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3) ‘요리점’과 기예의 상업화

1904년 최초의 요리점, ‘명월관’(황토현, 지금의 세종로)이 세워진 이후로 ‘요리점’은 술과 음식을 파는 상업적 공간이면서, 기생들의 기예의 연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성격의 유흥 공간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기생에게 강제적으로 요구된 ‘요리점’에서의 영업활동은 구조적으로 전근대 시대 여악으로서의 전통적 판기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기예를 상업적 가치로 전이시키며, 또한 기생의 연회 접대부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화시키게 된다.

2) 근대적 ‘예술가’와 유흥접대부 사이

(1) 근대 기생과 예술

- 무대 위의 기생들: 각종 가무 발표회
권번 정기연주회, 박람회 공연.
천재지변으로 인한 동포 구제공연회, 유치원 및 학교설립 보조를 위한 공연, 조선음악부흥을 위한 공연 등 비상업적 목적의 각종 자선공연.
- 무부기(無夫妓)의 출현
전근대 기생의 경우, 그들을 관리해왔던 기부(妓夫)의 존재가 특징인데 이들은 기생의 기예활동과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면서 통제하는 일종의 매니저와 포주 역할을 하는 중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근대 시기에 기생들은 이제 기부들과의 개인적 관계망을 벗어나 기생조합이라는 조직 속에 재편되었지만, 종래의 기부와의 관계형식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1913년경에는 기부(妓夫)를 가지지 않은 평양기생 중심의 무부기들이 다동 조합이라는 최초의 무부기 조합을 창설한다. 이는 전근대 시기부터 기생에게 부과 되어온 ‘창기’라는 낙인으로부터 이탈하여, 근대 전문 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소리기생’: 판소리 명창의 탄생.
학예부의 고된 훈련을 통해 예도를 정통적으로 배운 기생으로서 기예로 인정을 받은 ‘소리기생’들은 전대의 여악(女樂)의 전통을 이으면서, 근대 예인으로서 대중적으로 명성과 부를 획득하였다. 이들은 1930년대에 이르러 ‘여류명

창'으로 자리매김되었는데 일부 기생들은 권번을 이탈하여 전문 음악 조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 대중가수·연극(창극)·여배우의 탄생

기생집단에서는 경성방송국 개국(1926년) 이후, 라디오 출연 및 유성기 음반 취입 등으로 신민요, 유행가 등을 부르는 대중가수들이 탄생한다.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배우조합'소속의 기생들이 극 무대 활동을 하고 각 권번 내 연예부를 거점으로 하여 활동사진(영화) 배우들이 배출된다.

당시 기생들 일부는 기존의 전통 기예 레파토리가 아니라 새로운 대중적 감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엔터테이너로 변신하였는데, 섹슈얼리티를 포함하여 그들의 몸이 지닌 자산은 근대 대중문화산업에 즉각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근대기생과 유흥 산업

- '화초기생'

: 기예보다는 얼굴이 곱고 자태가 아리따운 것만 내세우는 기생.

- 유흥접대와 사창(私娼)

'요리집'과 같은 상업적 유흥공간을 포함하여 이미 작동되기 시작한 유흥산업과 성산업은 기생들의 감정노동(접대)과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였다. 요리점(경성과 지방의 편차)에서 상대적으로 상품적 가치가 낮았던 기생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사창으로 전락하고, 1930년대 후반 사창화된 여성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 속에 동원된다.

3) 기생의 근대적 자각

(1) 자유연애·도시소비문화의 주체로서의 기생

: 1910~20년대 유행의 선도자, '신여성'과 각축.

요리점을 중심으로 한 사교문화의 꽃·연애의 주인공

(2) 노동조합적 활동과 근대적 노동자로서의 자기 인식

: 기생조합(권번) 내부의 자치활동과 결사체 조직. 요리점, 권번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는 집단적 활동(파업 포함)을 전개하고, 기생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3) 잡지, 『장한(長恨)』(1927)의 발간: 대사회적 담론의 생산

1927년 당시 경성 4대 권번 기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간행된 기생잡지 『장한(長恨)』은 근대를 관통한 기생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대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장한』에는 제도 속에 활용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제도로부터 주변화되어 온 자신들의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근거를 찾고자 한 기생들의 자각된 목소리가 가득 차 있다.

3. 카페와 여급

1) 1930년대 도시문화와 카페

(1) 요리점을 대체한 신흥 유흥풍속

1920~30년대 경성은 백화점, 음식점, 영화관, 음악회장, 다방(꺄다점), 카페와 같은 근대적 소비문화 공간들로 가득 차게 된다. 식민지 조선에서 카페는 1920년 전후로 하여 경성의 일본인 거류지인 남촌을 주변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일본 다이쇼(大正) 시대(1912~1925년)에 크게 성행한 카페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30년대에 전성기를 맞은 카페는 커피와 양주, 서양음식, 쥘레, 사교춤 등의 서구적 기호물과 ‘여급’을 중심으로 도시 유흥 풍속을 선도하게 된다.

(2) 데카당스적 향락과 근대 자유연애의 실험: 카페-팁(돈)을 주고 연애를 하는 공간

- 여급의 성격: 당시 카페 고객들 가운데에는 학생, 신문기자, 문인 등의 지식인 남성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카페가 제공하는 갖가지 서구 취향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여급들과의 유희적 만남을 즐기게 된다.

1930년대 카페여급은 극빈층의 여성에서 여학교 출신의 인텔리 여성, 여배우, 기생출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적색 여급을 포함하여 학력과 계층, 사상, 경력 등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여급은 중산층에 편입되지 못한 ‘훼손된 신여성’ 이미지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보

통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계층이 많았고, 여학교 출신의 인텔리 여성이나 여배우를 포함한 일급 여급들은 외적 지명도와 고수입을 바탕으로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에서 대중 스타의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외형적으로 서구적 치장을 하고 일정 정도의 지식과 사교술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 사회가 선망한 ‘모던 걸’의 이미지를 상품화하였던 존재였다.

- 여급의 노동의 성격: 여급의 에로 서비스- 노동과 유희 사이의 모호한 경계
여급이 사창(私娼)의 일원으로서 식민권력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그 일차적인 근거는 카페 안에서 여급들에게 요구된 서비스의 성격에 기인한다. 카페 여급에게는 예인으로서 기생을 특징짓는 기예 공연의 의무가 없는 대신에, 보다 직접적이고 다소 노골적인 ‘에로 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는 모호하고도 유동적이었다. 당시 카페는 일본을 거쳐 유입된 근대 문화의 식민지적 특수성과 더불어, 근대 유흥산업이 양산한 에로티시즘과 여성이 관계 맺는 역사적 방식을 문제 제기한다. 카페 속 에로티시즘은 일본 다이쇼 데모크라시(에로· 그로· 년센스)의 식민지적 발현이자 문화적 혼성물이라 할 수 있다.

(3) ‘사교, 문화의 장(場)’으로서의 카페: 문인들의 근대체험의 장소

- * 1910년대~20년대 초 <백조>파 동인들: ‘요리집’ 순례를 통해 인생의 암흑면과 도덕의 밑바닥을 체험· 폭로.
- * 1930년대 문인들(구인회)과 카페: 문학· 예술· 사교의 아지트.

2) 문학 속의 카페 공간

(1) ‘여급문학’이라는 명명: 여급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들.

<조선일보> 1939년, 8월 8일자. <創作 三十二人集>(1939, 문장사) 소개.
박태원, 이상, 유진오, 이효석, 안희남 등의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

(2) 소설 속의 여급의 이미지들: 지적인 소양, 관능적 매력, 연애의 기교를 겸비한 여성들

사랑의 주체 - 박태원, 정인택의 작품.

팜프과탈적 여성 이미지 - 李箱의 작품에서 성적·경제적 자율권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과 공포.

성적 방종의 일탈된 여성들 - 염상섭, 유진오의 작품.

사창(私娼)에 가까운 카페여급 - 김유정의 작품.

제도적 규범에 대항하는 위반적 여성 - 이효석의 작품.

가족 밖의 연애와 일부일처제의 균열 - 안희남의 작품.

3) 여급들의 자기 인식과 대사회적 대응

(1) ‘직업부인’으로서의 여급

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인텔리 여급들은 대중잡지와 일간지 신문에 글을 투고하면서 여급으로서의 존재 근거와 직업부인으로서의 여급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2) 여급잡지 『여성(女聲)』(1934) 발간

1934년에 카페 여급들이 주축이 되어 발간한 『여성(女聲)』이라는 여급 잡지는 여급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대사회적 목소리를 보다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기한다. 잡지 발간을 통해서 카페 여급들의 글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나아가 여급들 내부의 상호협조와 친목, 여급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도모했던 흔적을 보이는 등, 1930년대 당대 여급 집단이 가지는 특수성과 근대 유흥 공간에서 노동했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자기대응을 보여준다.

4. 유흥 공간 속의 모더니티

근대 시기, 요리점과 카페는 서구의 살롱에 비견되는 문화적, 사교적, 예술적 장

이면서, 여성의 몸을 쾌락의 매개로 활용하는 자본주의적 도시 유흥산업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요리점의 경우, 전근대 시기 양반층의 풍류 문화에 기원하면서 근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된(기생조합, 요리점의 운영체제 등) 유흥 공간이라면, 카페는 일본을 경유하여 식민지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적 기호물, 근대의 기표로서 각광받았던 도시 유흥공간이었다.

문화사적으로 볼 때, 기생과 여급은 새로운 도시문화의 전방에서 서구적 근대 문물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가족 제도 밖의 공적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노동의 자산으로 삼았던 여성들로서 당대 관습적 규범과 충돌한 문제적 여성들이었지만, 여성 내부의 다양한 층위의 욕망을 발견하고 실현한 주체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로부터의 비판적 시선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잡지 발간을 통해 인정투쟁을 벌인 소수자 집단들이기도 하였다.

식민지 시기의 유흥 공간인 요리점과 카페, 기생과 여급 등의 역사적 존재들은 근대 시기 조선을 점령했던 식민자의 욕망, 도시 유흥 산업을 통해 도시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간 자본의 욕망, 근대 일부일처제의 질서와 규범의 반대 축에서 여성의 몸을 활용하는 유흥 산업에 의해 착취되는 한편으로 그 기제를 생존의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던 여성들의 욕망이 맞물리는 등, 식민지 시기 근대 문화의 중층적 지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010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 한국 근대문화의 이해 -

- 발 행 일 : 2010.08
 - 발 행 인 : 서관석
 - 발 행 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
TEL. (032) 440-6734
FAX. (032) 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인 쇄 : 서해인쇄문화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

TEL : (032) 440-6750 FAX :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